



INTERNATIONAL EXPORT CONTROL
Observer

Inside this Issue

- 2
-	“ (military catch-all)”
-	(Ivanov)
-	(Bakiyev)
- 6
- 8
-	RTGs
- 11
-	EU
- 14
-	(Trade Restriction Status)
-	6
- 16
-	, PSI ; , PSI
- 17
-	(反) , (反)
-	(ICP)

최근 소식

미국 정부, “군사 캐치올 (military catch-all)” 준비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 (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 [BIS]) 은 중국 군의 현대화에 기여할 것으로 추측되는 수출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는 규정의 초안을 곧 공포할 예정이다. 일반적으로 “military catch-all”로 불리는 새로운 규정에 따라 중국으로의 수출 시 허가를 요하는 미 상무부 통제목록 (U.S. Commerce Control List [CCL]) 에 총 47개 그룹의 물자들이 추가된다. [1,2] [편집자 주: 새로이 제안된 규정이 기술적으로 여러 나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특별히 중국 군의 현대화 노력을 겨냥하고 있다.] [3]

미 상무부 통제목록 (CCL) 에는 산업안보국 (BIS) 이 통제하는 이중용도 물자도 포함되어 있으며, 미국 수출관리 규정 (U.S. 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 [EAR]) 이 CCL의 유지를 의무화하고 있다. CCL에 등재된 물자에 대해서는 “목적지”와 “통제 사유” 등 두 가지 기준에 기반한 허가 요건이 규정되어 있다. 산업안보국 (BIS) 은 CCL과 함께 통상국가표 (Commerce Country Chart) 를 참고하여 CCL에 통제 대상으로 등재된 물자의 허가 필요 여부를 결정한다. [편집자 주: CCL과 통상국가표는 각각 수출관리규정 (EAR) 774부 부록 1과 738부 부록 1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전문가들은 수출 목적지와 “통제 사유”를 바탕으로 한 각 수출 건의 허가 요건을 결정하는데 통상국가표를 이용하고 있다.] [4] 보도에 따르면, 새로 공포될 규정에 따라 화학물자, 미생물, 전자제품, 컴퓨터와 통신 장비, 레이저, 센서, 항법 항공전자공학 소프트웨어, 추진 시스템, 항공기 등의 CCL 이중용도 카테고리에 새로운 물품군이 추가될 것이다. 일부 산업 그룹에 공개된 2006년 3월 초안에 따르면, 산업안보국 (BIS) 은 이른바 “화이트 리스트 (White List)” 라 불리는, 미국 안보에 위협을 끼치는 활동에 가담한 기록이 없는 중국 기업 목록을 도입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새로이 공포될 규정은 중국 기업들에 대한 최종 용도 요건을 확대하고, “허가를 요하는 5,000달러 이상 규모의 모든 대(對) 중국 수출 물자에 대하여” 최종 사용 증명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2]

미국 정부에 따르면, 새로 공포될 “military catch-all” 은 수출 물자가 바세나르 협약 (Wassenaar Arrangement [WA]) 통제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해도 UN 안전보장이사회 무기 금수조치와 지역 무기금수, 또는 바세나르 협약 (WA) 회원국들의 자발적인 금수조치 하에 있는 국가들에 의해 군사적 용도로 사용될 소지가 있는 경우 이들 이중용도 물자와 기술의 이전을 위한 허가 요건을 결정하는데 있어 2003년도 바세나르 협약 (WA) 을 따를

것을 규정하고 있다. [2,5] [편집자 주: 바세나르 협약 (WA) 은 1989년 천안문 무력 진압 사태 이후, 유럽연합 (EU) 과 미국이 처음 내린 중국 무기금수조치에 따라 중국에 대한 금수를 유지하고 있다.]

“military catch-all” 규정은 지난 1년 간, 미국 정부 기관과 업계 대표들 사이에서 주된 논의 주제였다. 일찍이 규정 초안을 접한 업계 대표들은 새로운 규정이 중국 시장 내에서 미국 기업들의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다른 WA 회원국들은 해당 규정을 미국 정부만큼 엄격하게 이행하지 않고, 중국 기업을 표적으로 하지도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중국 업체들이 문제의 물자들을 미국 수출업체가 아닌 다른 국가의 기업으로부터 손쉽게 조달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규정은 미국 국가 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고 중국 내 미국 기업들에게 심각한 불이익만 주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3,6]

업계의 비판에 대하여 산업안보국 (BIS) 은 새로운 규정이 미국의 기술이 미국 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군사적 최종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보증하면서도 미국 업계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안되었다고 주장했다. 상무부 데이비드 맥코믹 (David McCormick) 산업안보 차관은 2006년 6월 9일에 열린 “대 (對) 중국 미국 첨단기술 거래” 포럼에서 새로 도입되는 규정의 범위가 제한적이며, “만년필부터 사무실 가구까지 조사 대상으로 삼을 만큼 광범위한 캐치올 규정”은 아니라고 주지했다. 그는 이 규정이 현재 통제 대상은 아니나 중국의 군비 증강에 잠재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특정 기술만을 대상으로 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맥코믹 차관은 또한, 부시 행정부가 다른 WA 회원국들, 특히 유럽과 일본 등에 중국 군의 현대화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는 기술의 이전을 통제할 수 있는 유사한 규정을 도입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WA의 보다 광범위한 military catch-all 시행에 관한 질문에 대해, 맥코믹 차관은 일본과 유럽 국가들과의 논의가 긍정적이었다고 밝혔으나, 해당 국가들이 2003년도 WA 결의안을 일관되게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7,8]

맥코믹 차관은 military catch-all 체도가 중국에 대한 미국 정부의 전반적 정책 맥락의 일부라고 주시하면서, 이는 국제 경쟁의 장에서 중국을 “책임 있는 이해당사자 (responsible stakeholder)” 으로 대우하고자 하는 미국의 정책 기조에 일맥상통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부시 행정부는 대부분의 중국 기업들이 “White List” 에 포함되어 이러한 허가 요건의 예외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White List”는 기업들이 합법적인 거래를 수행하도록 하는 유인책으로 기능할 수 있다. 이 목록에 등재되는 중국 기업의 수가 늘어날수록 중국의 비(非) 군수산업 활동에 대한 신뢰도 역시 높아질

것이다. 맥코믹 차관은 특정 중국 수입업체와 오랫동안 거래를 유지해 온 미국 기업들의 경우, 해당 중국업체들이 대부분 “White List” 에 등재될 만한 기업들일 것이므로 military 캐치올 규정과 관련하여 큰 불편을 겪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모든 미국 기업들은 그들의 수출 대상 업체와 수출물자의 최종 용도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한다. [7,8]

Sources: [1] Douglas N. Jacobson, “Under Secretary McCormick Provides Update on BIS Military Catch-All Proposal at CSIS,” International Trade Law News (weblog), June 11, 2006, <<http://www.tradelawnews.com>>. [2] “Draft Export Control Rule Would Require Licenses for 46 Products,” Inside US-China Trade, May 3, 2006; in Lexis-Nexis Academic Universe, <<http://www.lexis-nexis.com>>. [3] John R. Liebman, “China Trade Export Controls and the New ‘Catch-All’ Regulation,” Metropolitan Corporate Counsel, April 2006, <<http://www.metrocorpccounsel.com>>. [4] “Commerce Control List Overview and the Country Chart,” Part 738 of the 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 pp. 1-3, <<http://www.gpo.gov/bis/ear/pdf/738.pdf>>. [5] “Public Statement.12 December 2003,” Wassenaar Arrangement (WA) Public Documents, WA website, <<http://www.wassenaar.org/publicdocuments/public121203.html>>. [6] Henry Sanderson and Rob Curran, “New Military Catch-all Regulation May Crimp China Trade,” MarketWatch online edition, May 9, 2006, <<http://www.marketwatch.com>>. [7] David McCormick, “Win-Win High Technology Trade With China,” speech at the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CSIS) in Washington, DC, June 9, 2006; available on U.S. Department of Commerce 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 (BIS) website, <<http://www.bis.doc.gov/News/2006/McCormick06-9-06.htm>>. [8] Remarks by David McCormick at “China Policy and High Technology,” CSIS Technology and Public Policy Program event, June 9, 2006; audio available on CSIS website, <<http://http://www.csis.org/events>>.

러시아 이바노프 (Ivanov) 부총리, 수출통제위원회 회의 보고

2006년 5월 29일, 러시아 부총리 겸 국방장관이자 러시아 연방 부처간 수출통제위원회 의장을 맡고 있는 세르게이 이바노프 (Sergey Ivanov) 부총리는 블라디미르 푸틴 (Vladimir Putin) 대통령을 만나, 2006년 5월 22일에 열린 위원회 회의 내용을 보고했다. 이바노프 (Ivanov) 부총리에 따르면, 해당 회의에서는 대량살상무기 (Weapons of Mass Destruction [WMD]) 비확산과 러시아 수출통제시스템 강화에 관련된 다양한 사안들이 논의되었다.

5월 22일에 개최된 위원회 회의 참석자들은 먼저, 러시아의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540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540 [UNSCR 1540]) 이행에 관한 러시아 외무부 당국자의 발표를 들었다. 다음으로는, 향후 인도와의 민간 핵 협력 강화를 위한 러시아의 계획안에 관련하여 핵공급국그룹 (Nuclear Suppliers Group [NSG]) 내에서의 러시아의 전략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위원회 참석자들을 이란 핵 프로그램을 둘러싼 상황에 대한 평가도 진행하였으며, 러시아가 아직 가입하지 않은 유일한 다자간 수출통제체제인 호주그룹 (Australia Group [AG]) 가입 문제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이바노프 부총리는 이들 논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VP 글루시코 에너고매쉬 과학생산협회 (VP Glushko Energomash Scientific Production Association [NPO Energomash]) 의 니콜라이 피로고프 (Nikolay Pirogov) 사무총장이 자사의 내부이행프로그램 (internal compliance program [ICP]) 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다. VP 글루시코 에너고매쉬 과학생산협회는 액체연료 로켓 엔진의 설계와 제조 분야에 있어 러시아 내 선도적인 업체이다. 이바노프 부총리에 따르면 에너고매쉬 (Energomash) 사의 이중용도 미사일 기술의 연간 수출 규모는 300억 루블(11억 달러)에 달했다. 수출통제 위원회에서 업계 대표가 이 같은 발표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위원회 참석자들은 러시아의 대규모 수출업체 관계자를 초빙해 그들의 내부이행프로그램에 대해 발표하는 관행을 계속 이어가기로 결의했다. 이바노프 부총리가 지적했듯이 이 같은 과정은 기업들의 러시아 수출통제법규 준수 현황에 대한 위원회의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1]

Source: [1] “Stenograficheskiy otchet o soveshchaniy s chlenami Pravitelstva” (Verbatim records of meeting with government members), May 29, 2006, Presid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website, <http://www.kremlin.ru/appears/2006/05/29/2100_type63378type63381106194.shtml>.

카자흐스탄 세관국, 방사능탐지시스템 설치

2006년 5월 12일, 카자흐스탄 재정부 산하 세관통제위원회 (Customs Control Committee [CCC]) 는 카자흐스탄 내에서 상용되는 새로운 세관통제 기술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세관국은 2003년 세관 검문소에 화물을 내려 손으로 검사하지 않고도 자동차, 기차, 벌크 컨테이너 등에 숨겨진 무기, 폭탄, 마약 등의 밀수품과 대량살상무기 관련 기술 등을 탐지할 수 있는 비침투 검사 시스템 (non-intrusive inspection system [NII]) 을 설치하기 시작했다. 세관국은 비침투 검사 시스템 (NII) 을 도입함으로써 세관 확인에 드는 시간과 관련 비용을 절약하고, 선적품에 위험한 물자가 없는지 확인함과 동시에 합법적인 거래가 보다 용이해 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1]

세관통제위원회 (CCC)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카자흐스탄-중국 국경의 코르가스 (알마티 오블라스트) 검문소와 카자흐스탄-러시아 국경의 자나 줄 (북카자흐스탄 오블라스트) 검문소 등 2곳에 비침투 검사 시스템 (NII) 이 설치되어 있다. 그리고 카자흐스탄-중국 국경의 도스틱 검문소 (알마티 오블라스트), 카자흐스탄-러시아 국경의 카이락 검문소 (코스타나이 오블라스트), 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 국경의 무라트바예프 검문소 (남카자흐스탄 오블라스트) 등 세 곳에 유사한 장비를 설치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에 더해, 세관통제위원회 (CCC) 는 카자흐스탄-중국 국경의 칼자트 검문소 (알마티 오블라스트) 와 카자흐스탄-러시아 국경의 아일 검문소 (동카자흐스탄 오블라스트) 등 두 곳의 검문소에 추가적으로 NII 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이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NII 시스템 구매에 소요되는 1조 2,500억 텡게 (1,050만 달러)를 포함하여 카자흐스탄 국경 검문소의 최신 통제장비 설치를 위해 2006년 한 해 동안 3조 438억 텡게 (2,880만 달러)의 예산을 책정하였다. [1]

International Export Control Observer 2006년 5월호에서 보도한 대로, 카자흐스탄과 미국은 2006년 5월 5일 미국 제 2차 방어선 (U.S. Second Line of Defense [SLD]) 프로그램 하에서의 상호 협력을 위한 이행협약 (Implementing Arrangement)에 서명했다. 이 협약에 따라, SLD 프로그램을 주관하는 미국 에너지부 산하 국가 핵안보국 (National Nuclear Security Administration [NNSA])은 카자흐스탄 세관통제위원회와 협력하여 카자흐스탄 국경의 주요 검문소에 NII 시스템을 포함하여 방사능 탐지장비와 통합 통신장비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NNSA와 카자흐스탄 당국자들은 지역 사법 실무자들에게 SLD 협정 하에서 제공되는 탐지장비와 통신장비 등의 사용법을 가르칠 예정이다. [2]

Sources: [1] "O noveyshikh tekhnicheskikh sredstvakh tamozhennogo kontrolya" (On the newest technical tools for customs control), Kazakhstan's Customs Control Committee (CCC) Fact Sheet, May 12, 2006, CCC website, <http://www.customs.kz/exec/news/news_msg?newsid=463>. [2] "United States and Kazakhstan Sign Second Line of Defense Agreement," *International Export Control Observer*, May 2006, pp. 11-12, <<http://www.cns.miis.edu/pubs/observer/index.htm>>.

바키예프 (Bakiyev) 키르기즈스탄 대통령, 국경보안국을 다시 독립기구로 분리하고 새 대표 임명해

2006년 5월 22일, 쿠르만베크 바키예프 (Kurmanbek Bakiyev) 키르기즈스탄 대통령은 국경 보호 분야에서의 국가 관리 강화를 위한 (*On Improving State Management in the Area of State Border Protection of the Kyrgyz Republic*) 명령 270호 (Edict No. 270)에 서명했다. 이 명령은 국경통제국의 명칭을 국경수비대 (Border Guard Troops)에서 국경수비국 (Border Guard Service)으로 바꾸고, 이를 기존의 국가안보국 (National Security Service [NSS]) 산하기구에서 독립기관으로 분리했다.

명령 270호에 따라 국경수비국은 국경 보호와 통제를 책임지는 독립적 국가기관이 되었으며, 대통령이 한 명의 대표와 4명의 부대표를 임명하게 된다. 키르기즈스탄 정부는 조직 구성과 재정 등 여러 사안에 있어 명령 270호를 적용하기 위해 기존 법규를 검토하고 개정하는 등, 국경보안국의 새로운 위상을 정비하는데 한 달의 유예기간을 주었다. [1,2]

국경보안국을 재정비한 후, 바키예프 대통령은 2006년 5월 24일자로 국경수비국 대표에 미르자칸 수바노프 (Myrzakan Subanov) 대신 콜로넬 자키르 킬레노프 (Colonel Zakir Tilenov)를 임명하는 명령에 서명했다. [3] 콜로넬 킬레노프는 1962년 키르기즈스탄 남부의

오쉬에서 태어났으며, 1983년에 KGB 고급국경수비군 기술학교 (KGB Advanced Border Guard Military-Technical School)과 1996년에 러시아연방 국경수비국 아카데미 (Academy of the Federal Border Guard Service of the Russian Federation)를 각각 졸업했다. 킬레노프는 1986년에서 1989년까지 아프가니스탄에서 근무했으며, 1989년부터 1999년까지는 키르기즈스탄의 나린, 프체발스크, 오쉬 등에 위치한 국경수비대에서 소비에트와 러시아 소속으로 근무했다. 1999년에 러시아 국경수비국이 철수한 후, 그는 러시아 국경수비국에서 나와 키르기즈스탄 정부에 합류했다. 그는 1999년부터 2005년 5월까지 키르기즈스탄 국방부와 안보국, 총리실 등에서 여러 직위를 거쳤으며, 2005년 5월 안보국 (NSS) 산하 국경수비대의 국경통제 총책임자로 임명되었다. [4]

국경수비기관의 이번 조직 재정비는 2005년에 있었던 바키예프 대통령의 결정을 완전히 뒤엎은 것이다. 바키예프 대통령은 2005년 5월 23일 국경수비국 (Border Guard Service)을 국경수비대 (Border Guard Troops)로 바꾸고, 이를 보안국 (NSS) 하위기관으로 복속시키는 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5]

2005년의 결정을 뒤집고 동시에 인사 개편을 단행한 공식적인 이유는 확인할 수 없으나, 이것이 2006년 5월 12일에 발생한 국경 사고와 이후 정부의 대응에 대한 키르기즈스탄 내부의 거센 비판 여론에 뒤이은 것이라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06년 5월 12일 이른 아침 차 두 대에 나누어 탄 한 무리의 무장집단이 타지키스탄 내에 위치한 라콘 검문소 (타지키스탄어로는 Lakkon, 키르기즈스탄어로는 Lyakkon)를 습격하여, 세 명의 타지키스탄 수비대원을 살해하고 19정의 카라시니코프 돌격용 자동소총 (Kalashnikov assault rifles)과 카라시니코프 기관총 (Kalashnikov machine-gun), 4,000발의 탄약 등을 빼앗았다. 이후 그들은 키르기즈스탄 영토로 들어와 아크-투르파에 위치한 국경 검문소를 습격, 한 명의 세관 직원과 그의 민간인 조수를 살해했다. [6,7] 이후 키르기즈스탄 법 이행 당국이 용의자들을 저지하기 위한 특수작전을 개시하여, 네 명의 용의자를 사살하고 한 명을 체포했다. [8,9] (일부 언론은 키르기즈스탄 당국이 두 명을 체포했다고 보도했다.) [10] 그러나, 작전을 수행하던 중, 보안국 (NSS) 알파 특수부대 소속 두 명과 내무부 특수군 소속 한 명, 그리고 한 명의 국경수비국 직원 등 총 네 명의 키르기즈스탄 공무원이 추가로 목숨을 잃었다. [8,9,10] 총기를 탈취하고 당국자들을 살해한 난입자들이 마약 밀매자들인지, 아니면 과격 이슬람 단체의 회원들인지도 알려지지 않았고, 그들이 정확히 몇 명인지도 파악되지 않았다. 그러나, 보안국 부수르만쿨 타발디예프 (Busurmankul Tabaldiyev) 국장의 발표에 따르면, 난입자들의 거처에서 폭발물 제조에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진 다량의 알루미늄 가루와 기타 재료들이 발견되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이들이 연쇄적인 테러를 계획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0,11]

키르기즈스탄 의회 Zhogorku Kenesh의 의원들은 키르기즈스탄 수사 당국이 작전 수행 과정에서 많은 사상자를 낸 데 대해 분노를 표시하며, 사고 해결을 위해 군사적으로 대응한 것이 과연 효과적이었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라쉬드 타가예프 (Rashid Tagayev) 국방, 안보, 법규, 정보 정책에 관한 의회 위원회 (parliament's Committee on Defense, Security, Rule of Law and Information Policy) 위원장은 저급한 (mediocre) 위기 관리 때문에 키르기즈스탄 군인들이 희생됐으며, 몇몇 장성들의 해임을 요구했다. [12] 두론베크 사디르바예프 (Dooronvek Sadyrbaev) 의원 역시 “무능한 장성들”은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7,10,11] 무라트베크 무카셰브 (Muratbek Mukashev) 의원은 바키예프 대통령에게 경솔하고 성급한 특수 작전을 지시한 책임자를 해임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는 그냥 넘길 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비정부기관들 역시 바키예프 대통령에게 보낸 공개 서한을 통해 국경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정부의 대처 방식을 비판하면서, 무장 단체가 키르기즈스탄 영토 내로 침입하여 군인들을 죽일 수 있었던 것은 정부의 허술한 법 집행구조 때문이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7] 이러한 비판에 대하여 타발디예프 (Tabaldiyev) 보안국 국장은 보안국이 다른 정부기관에서 인력을 수급하던 지금까지의 관행을 없앨 것이며, 보안국 인력을 러시아의 특수교육기관에서 훈련시키는 방안을 러시아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11,12] 타발디예프 (Tabaldiyev) 국장이 사고 발생 이틀 전인 2006년 5월 10일 타쉬테미르 아이트바예프 (Tashtemir Aytbayev) 전 (前) 국장을 대신하여 임명된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13]

Sources: [1] Ministry of Justice of the Kyrgyz Republic News Release, June 2, 2006, Ministry of Justice of the Kyrgyz Republic website, <<http://www.minjust.gov.kg/rus/news/192>>. [2] “Pogranichnaya sluzhba vyvoditsya iz podchineniya SNB” (The border service is removed out of subordination to the National Security Service), Kabar News Agency (Kyrgyzstan), May 23, 2006, <<http://www.kabar.kg>>. [3] “Kadrovyye perestanovki v pogranichnoy sluzhbe Kyrgyzstana” (Personnel changes in Kyrgyzstan’s border guard service), President of the Kyrgyz Republic website, May 24, 2006, <<http://www.president.kg/press/news/1166/>>. [4] “Smena rukovodstva pogransluzhby Kyrgyzstana: novym predsedatelem naznacheni Zakir Tilenov” (Change in the management of Kyrgyzstan’s border guard service: Zakir Tilenov appointed a new chairman), Tazar online newspaper, May 24, 2006, <<http://www.tazar.kg>>. [5] “Heads of Kyrgyz Border Guard and Emergency Agencies Replaced; Border Guards Subordinated to National Security Service,” *NIS Export Control Observer*, May 2005, <<http://www.cns.miis.edu/pubs/nisexcon/index.htm>>. [6] “V perestrelke v Kirgizii pogibli 5 chelovek” (Five were killed in a shootout in Kyrgyzstan), Rosbalt News Agency, May 12, 2006, <<http://www.rosbalt.ru>>. [7] Bakhtiyor Valiev and Cholpon Orozobekova, “Kyrgyz-Tajik Border Raid Stokes Fears,” *Reporting Central Asia*, No. 448, May 19, 2006, Institute for War and Peace Reporting website, <<http://www.iwpr.net>>. [8] “Na yuge Kyrgyzstana pogibli chetyre sotrudnika pravookhranitelnykh organov” (Four law enforcement officers die in the southern Kyrgyzstan), Kazakhstan Today News Agency, May 13, 2006; in *Gazeta.kz*, <<http://www.gazeta.kz>>. [9] “Kyrgyzstan budet usilivat okhranu gosgranitsy” (Kyrgyzstan will

strengthen the protection of its state border), Kazakhstan Today News Agency, May 15, 2006; in *Gazeta.kz*, <<http://www.gazeta.kz>>. [10] Yuliya Orlova, “V Kirgizii ne isklyuchayut povtornykh napadeniy boyevikov” (Kyrgyzstan does not discount the possibility of further militant incursion), RIA Novosti, May 15, 2006, <<http://www.rian.ru>>. [11] Aleksey Matveyev, “‘Ak-Turpak’, ‘Lyakkan’... daleyе vezde? (‘Ak-Turpak’, ‘Lyakkan’... then where?), *Voyenno-promyshlennyy kuryer* online edition, No. 21 (137), June 7-13, 2006, <<http://www.vpk-news.ru>>. [12] “Kirgizskikh chekistov budut učit v Rossii” (Kyrgyz special agents will be trained in Russia), Regnum News Agency, May 21, 2006, <<http://www.regnum.ru>>. [13] Bek Orozaliyev, “Kurmanbek Bakiyev raspustil soratnikov” (Kurmanbek Bakiyev dismissed his teammates), *Kommersant* online edition, No. 82, May 11, 2006, <<http://www.kommersant.ru>>.

대만 정부, 이란과 북한에 대한 수출 제한에 동참

2006년 5월 22일 대만 무역국 (Bureau of Foreign Trade [BOFT]) 은 전략 물자에 대한 새로운 통제 목록을 준비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략 물자의 이전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무역국 (BOFT) 이 실시한 일련의 시도 중 가장 최근에 발표된 것이다. 무역국 발표에 따르면, 이번에 단행되는 통제 목록 개정은 국제 수출통제체제의 규정을 준수하고, 북한과 이란이 자신들의 군 프로그램과 대량살상무기 (WMD) 생산에 사용하기 위해 대만으로 부터의 수출품을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새로운 통제목록은 2006년 6월 1일부로 발효되었다.

최근 단행된 민감물자목록 (Sensitive Commodity List) 의 개정은 이란과 북한을 표적으로 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 목록은 "카테고리 1"에 포함되는 이라크, 리비아, 쿠바, 수단, 시리아 등의 국가에 대한 수출도 금지하고 있다. [편집자 주: 대만 수출통제시스템에서 “카테고리 1” 국가들은 매우 제한적인 허가 요건의 대상이 되며, 이들 국가에 대한 통제 물자의 수출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모든 “카테고리 1” 국가들이 새로운 통제목록의 영향을 받게 되나, 이란 정부와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국제적 관심이 쏠려 있는 상황에서 대만이 통제목록을 강화한 주요 요인은 이란과 북한으로의 잠재적 이중용도 수출을 중단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1,2]

대만 무역국이 단행한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대만 무역법의 “전략적 첨단물자”와 “수출제한지역” 조항에 의해 통제되는 민감물자목록 (Sensitive Commodity List) 에 87가지의 물자를 추가한 것이다. 새로 추가된 물자들은 다수의 그래파이트 관련 물자 (graphite-related commodities) 와 생화학 전조물질, 수압, 기압 실린더와 관련 부품, 원심분리기, 정수 장치, 기계 장치, 선반 (lathes), 직접회로 (integrated circuits) 등을 포함하여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있다. 새로 추가된 통제 물자의 전체 목록은 무역국 웹사이트 <<http://eweb.trade.gov.tw/public/Attachment/66517421371.doc>> 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통제 목록에 포함된 물자를 수출하고자 하는 대만 수출업체는 이란이나, 북한 등 카테고리 1에 해당하는

국가들에 물자를 이전하기 전에 반드시 무역국 (BOFT) 의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한다. 이는 대만에서 환적되는 물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2,3]

이란과 북한으로의 수출을 통제하기 위한 이번 조치는 민감한 물자의 중국 이전을 통제하기 위한 최근 구상들 (recent initiatives) 에 뒤이은 것이다. 무역국 (BOFT) 은 대만 기업들이 중국 정부의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에 사용될 수 있는 민감한 기계 공구 (sensitive machine tool) 를 중국에 판매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에 따라, 2006년 4월에 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를 통해 수출법 위반에 대한 뚜렷한 증거를 찾아내지는 못했으나, 대만 정부는 중국에 대한 해당 기계 공구의 수출을 단속하기로 했다. [편집자 주: 중국으로의 기계 공구 수출 사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International Export Control Observer 2006년 5월호, 6페이지의 “대만에서 중국으로 민감한 (sensitive) 공작기계 수출” 기사를 참조하십시오. <<http://cns.miis.edu/pubs/observer/index.htm>>. 대만의 수출통제법규와 제반 구조에 대해서는 Asian Export Control Observer 2005년 2/3월호, 11~16페이지, 마크 웨벨즈 (Mark Wuebbels) 와 피트릭 하이먼 (Patrick Heiman) 의 “접증하는 고민: 대만 수출통제시스템의 개괄” 기사를 참조하십시오. <<http://cns.miis.edu/pubs/observer/asian/index.htm>>]

Sources: [1] Deborah Kuo, “Taiwan to Control Exports of Sensitive Goods to Iran, North Korea,” Global News Wire, BBC Monitoring, May 7, 2006; in Lexis-Nexis Academic Universe, <<http://web.lexis-nexis.com>>. This report suggested that there would be 89 items listed to Taiwan’s commodity lists; however, as noted above, only 87 were added. [2] “Public Notice Announcing a Revision of the Categories of Strategic High-Tech Commodities and the Restricted Areas for Export, that Will, Moreover, Take Effect Starting from 1 June, 2006,” Doc. No.: Ching Mao Tzu 09504602910, Taiwan Bureau of Foreign Trade (BOFT), May 22, 2006, <<http://eweb.trade.gov.tw/content.asp?Cultem=12097&baseDSD=5&CtUnit=187>>. [3] “Sensitive Commodity List,” BOFT website, updated May 2006, <<http://eweb.trade.gov.tw/public/Attachment/66517421371.doc>>.

인사 개편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미국 위원회 회원들의 군사 기술협력 승인

2006년 4월 17일 우크라이나 내각은 우크라이나-미국 위원회 회원들이 군사 관련 연구 개발 정보와 기술 협력을 교환하는 것을 승인했다. [1] 군과 기술 분야에서의 우크라이나와 미국의 협력은 군사기술협력 분야에 있어 양국간 연구개발정보 교환에 관한 협정에 근거한 것이다. 양국은 2000년 3월 31일 워싱턴 D.C.에서 이 협정에 서명하였으며, 우크라이나 내각은 2000년 8월 21일, 이를 승인했다. 그러나 이를 담당하는 우크라이나-미국 위원회가 언제 구성되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2,3]

볼로디미르 테레쉬첸코 (Volodymyr Tereshchenko) 전 (前) 국방차관은 2006년 4월 17일자 내각 결의안 206호 (Cabinet of Ministers Resolution No. 206) 에 의거하여 위원회의 우크라이나 측 대표로 임명되었다. [4] 위원회의 나머지 구성원은 아래의 목록에 나와있는 바와 같다. [5]

우크라이나 측 위원회 구성원의 면면을 보면, 군사기술의 연구개발 분야에 있어 우크라이나가 생각하고 있는 미국과 향후 협력 규모를 예측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 군, 전환, 군축 연구 싱크탱크 센터 (Ukrainian think-tank Center for Army, Conversion and Disarmament Studies [CACDS]) 의 전문가인 세리 즈구레츠 (Serhiy Zgurets) 은 위원회가 아직 초기 단계에 있기는 하나 미국 측은 우크라이나의 우주시스템 생산 기술에 흥미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6]

이름	소속	직위
올렉산드르 소추코프 (Oleksandr Sotnikov) (위원회 사무국장)	국립과학아카데미 최고 간부 회의 (Presidium)	국방부 관련 사안 검토부서 대표
세리 본다르추크 (Serhiy Bondarchuk)	국영무기수출회사 Ukrspetsekспорт	회장
볼로디미르 벨라쇼프 (Volodymyr Belashov)	외무부	군비 통제와 군사 기술 협력 담당국 국장
세리 카트리치 (Serhiy Katrich)	국방안보이사회 (National Security and Defense Council)	군사기술 협력 이사회와 군안보수출통제국 대표
볼로디미르 코주브 (Volodymyr Kozub)	경제부	국방 안보 경제국 국장
발레리 코마로프 (Valeriy Komarov)	국립 우주국 (National Space Agency [NSA])	선임 부국장 (First Deputy Director General)
올렉시 코미사로프 (Oleksiy Komisarov)	우크라이나 보안국 (Security Service of Ukraine [SBU])	대적 (對敵) 정보국 국장

이호르 레셰틸로프 (Ihor Reshetylov)	수출통제국	부국장
미카일로 루카닌 (Mykhaylo Lukhanin)	산업정책부	국방, 산업 정책, 군사 기술 협력 담당국 국장
올레나 쉬체르바코바 (Olena Shcherbakova)	지적재산권국 (National Department for Intellectual Property)	유럽 통합과 국제 협력 담당과 과장

Sources: [1] "Ukraine Appoints Representatives For Military Research Cooperation With USA," Interfax-Ukraine, April 18, 2006; in Lexis-Nexis Academic Universe, <<http://www.lexis-nexis.com>>. [2] "Highlights of Ukraine-U.S. Bilateral Relations," official website of the Embassy of Ukraine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http://www.ukremb.com/politics/bilatrelations.html>>. [3] "Pravitelstvo Utverdilo Ukraino-Amerikanskoe Soglashenie Ob Obmene Informatsiy Po Voprosam Issledovaniy I Razrabotok V VTS" (Government approved Ukrainian-American agreement on information exchange on questions related to research and development in the area of military and technical cooperation), Center for Army, Conversion and Disarmament Studies (CACDS), August 21, 2000, The 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website, <<http://www.niss.gov.ua/cacds/archiveu/serpen00/0821a.html>>. [4] "Utverzhden sostav ukrainskoy chasti Sovmestnoy ukrainsko-amerikanskoy komissii ob obmene informatsiy" (Composition of the Ukrainian part of the joint Ukrainian-American commission on information exchange has been approved), LigaBiznesInform News Agency (Ukraine), April 18, 2006, <<http://www.liga.net>>. [5] "Ukraine Appoints Representatives For Military Research Cooperation With USA," Interfax-Ukraine, April 18, 2006; in Lexis-Nexis Academic Universe, <<http://www.lexis-nexis.com>>; and "Ukraina Podelitsya S SSHA Voennymi Razrabotkami" (Ukraine will share military achievements with USA), Commentary and Analysis On-line Project PolitUm (Ukraine), April 19, 2006, <<http://www.politum.org.ua/news/4445cd3031a6f/>>. [6] Mikhail Gannitskiy, "Amerika uznaet nashi sekrety" (The United States will find out our secrets), Gazeta po-kievski Online (Gazette Kiev-style), April 20, 2006, <<http://www.pk.kiev.ua>>.

러시아 세관국, 대규모 구조 개편 단행

블라디미르 푸틴 (Vladimir Putin) 대통령이 부패한 세관 당국자들에 대해 전례에 없는 대규모 단속을 벌임에 따라 러시아연방세관국 (Russia's Federal Customs Service [FCS]) 은 2006년 5월~6월에 대규모 구조 개편과 인사 개편을 겪었다. 현재에도 진행 중인 이번 개편은 당국이 프리모스크 크레이 (Primorsk Kray), 브리안스크 (Bryansk), 이르쿠츠크 (Irkutsk), 칼루가 (Kaluga), 레닌그라드 (Leningrad), 노보시비르스크 (Novosibirsk), 펜자 (Penza), 야로슬라블 (Yaroslavl), 브리안스크 오블라스트 (Bryansk oblasti) 등에 위치한 연방세관국의 주요 사무소들과 모스크바에 위치한 셰레메티예보 (Sheremetyevo), 브누코보 (Vnukovo), 도모데도보 (Domodedovo) 공항 사무소 등에서 근무하던 고위급 세관 당국자들을 연쇄적으로 체포한 데 따른 것이다. [1,2,3] 그러나, 러시아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이번 세관 구조 개편을 부패 스캔들과 연관 짓지 않고 있다. [편집자 주: 푸틴 (Putin) 대통령은 2006년 4월 10일에 열린 내각 회의에서 곧 개시할 반 부패 캠페인과 관련하여, 세관 조직이 업계와 유착하는 것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그는

또한, 2006년 5월 10일에 열린 연방 의회 (Federal Assembly) 의 연례 연설에서, 러시아의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해악이 바로 부패 (corruption) 라고 강조했다. 그는 만약 기업인과 정부 관료가 유착 관계를 통해 부당 이익을 취하려 한다면, 정부는 이 같은 행동을 관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4,5]

푸틴 (Putin) 대통령은 2006년 5월 11일 연방세관국 관리에 관한 (Issues of the Federal Customs Service) 명령 473호 (Edict No. 473) 에 서명했으며, 이는 서명 직후 발효되었다. 이 명령에 따라, 기존에 경제개발무역부 (Ministry of Economic Development and Trade [MEDT]) 산하 기구였던 연방세관국 (FCS) 이 러시아 내각의 직접 통제를 받게 되었다. 또한, 기존에 경제개발무역부의 관할 하에 있던 세관 관련 정부 정책과 법규 기안 (drafting) 에 관련된 모든 기능이 연방세관국 (FCS) 으로 반환되었다. 새로 발효된 명령은 국무총리가 가지고 있던 FCS 국장의 임명과 해임에 관한 권한을 그대로 유지시켰으며, 기존에 경제발전무역부 장관이 가지고 있던 FCS 부국장 임명권도 국무총리의 권한으로 귀속시켰다. 또한 기존에 경제발전무역부 장관이 가지고 있던 지역 세관 지소와 사무소 대표의 임명권을 FCS 국장 권한으로 귀속시켰다. 러시아 내각은 발효된 명령의 이행을 위해 경제발전 무역부와 FCS 간의 기능과 권한을 재분배하는 책임을 지고 있다. [6]

대통령 명령에 이어, 미하일 프라드코프 (Mikhail Fradkov) 국무총리는 2006년 5월 12일 2006년 7월 6일자로 FCS 국장으로 재직했던 알렉산드르 제리코프 (Aleksandr Zherikhov) 전 (前) 국장의 해임을 위한 명령 682-r (Directive No. 682-r) 에 서명했다. [7] 같은 날, 프라드코프 (Fradkov) 국무총리는 안드레이 벨리아니노프 (Andrey Belyaninov) 를 신임 FCS 국장으로 임명하는 명령 683-r호 (Directive No. 683-r) 에 서명했다. [8]

프라드코프 총리는 같은 날, 유리 아자로프 (Yuriy Azarov) 와 레오니드 로즈벤코 (Leonid Lozbenko) 를 FCS 부국장 직에서 해임하는 명령 688-r호와 689-r호에 서명했다. 정부 당국은 이번 해임이 그들 자신의 "요청"에 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9,10] 프라드코프 총리는 5월 26일 각각 명령 749-r호와 750-r호에 따라, FCS 내부안보실 (FCS Internal

Security Directorate) 실장에 이고르 자브라즈노프 (Igor Zavrazhnov) 를, 기존에 재무부 재정예산관리국 (Russian Federal Financial and Budgetary Supervision Service) 대표를 맡고 있던 블라디미르 말리닌 (Vladimir Malinin) 을 신임 FCC 부대표로 임명했다. [11,12] 2006년 6월 9일 프라드코프 총리가 “다른 직책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니콜라이 볼로부예프 (Nikolay Volobuyev) 전(前) FCS 부국장을 명령 850-r호에 따라 해임하면서 FCS의 인사 개편 흐름은 이어졌다. [13] 볼로부예프 (Voloquyev) 전(前) 부국장의 후임은 발표되지 않았으나, 이고르 자브라즈노프 신임 실장이 그의 책임을 대신 맡고 있다. [14]

러시아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안드레이 벨리아니노프 신임 FCS 국장이 2006년 6월 초, 샤마코프 (Shamakov) 가 맡고 있던 책임의 대부분을 신임 부국장인 블라디미르 마릴린에게 귀속시켰다. 당시 샤마코프 전 부국장은 두 달 간의 휴가 중이었고, 그가 곧 사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었다. FCS에 정통한 한 정보원에 따르면, 샤마코프 전 부국장은 상트 페테르부르크 차치기관에 자리를 잡을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한편, 타티아나 골렌데예바 (Tatyana Golendeyeva) 부국장은 제리코프 전(前) FCS 국장 체제의 부국장들 중 유일하게 자신의 직책을 유지하고 있다. [14,15]

안드레이 벨리아니노프 신임 FCS 국장은 1957년생으로, 1978년에 플레카노프 모스크바 경제대학 (Plekhanov Moscow State Institute of National Economy) - 지금의 플레카노프 경제아카데미 - 를 졸업하고, 1994년에 러시아연방 경제아카데미 (Academy of National Economy) 를 졸업했다. 그는 1978~1991년 사이에 국가안보위원회 (Soviet Committee for State Security [KGB]) 의 First Main Directorate에서 근무했으며, 1980년대 후반에는 동독 주재 대사료 재직했다. 그는 1992~1999년 사이에 상업 은행 내의 여러 직책을 두루 거쳤으며, 1999년 12월 프로멕스포트 연방기업 (Promeksport Federal State Unitary Enterprise) 의 부사장으로 임명되었다. 프로멕스포트 연방기업은 무기수출회사로서 2000년에 로스부루제니예 (Rosvooruzheniye) 와 합병되어 러시아 국유 무기거래 기업인 로소보로넥스포트 사 (Rosoboroneksport) 가 되었다. 벨리아니노프는 2000년 11월 로소보로넥스포트 사의 사장직에 임명되었으며, 2004년 4월에는 국방부 산하 무기 조달국인 로소보론자카즈 (Rosoboronzakaz) 의 대표로 임명되었다. [16]

편집자 주: 러시아 무기 조달 기업인 로소보론자카즈 (Rosoboronzakaz) 는 국방부 산하 행정기관으로, 정부의 무기 조달에 관련된 러시아 법규에 따라 러시아 기업들을 통제하고 관리한다. [17]

Sources: [1] “Obzor publikatsiy v presse o deyatelnosti tamozhennykh organov Rossii za period s 7 po 19 maya 2006 goda” (The review of press publications regarding the activities of Russia’s customs service for May 7-19, 2006), Russia’s Federal Customs Service website, May 19, 2006, <<http://www.customs.ru/ru/press/pub/index.php?id286=10453>>. [2] “Prokuratura sovместno s FSB RF rassleduyet okolo 20 ugovolnykh del po faktam zloupotrebleniya dolzhnostnymi polnomochiyami v sisteme tamozhennykh organov i MERT” (The Prosecutor’s Office investigates jointly with the Russian Federal Security Service about 20 criminal cases of abuses of office in the Customs Service and the Ministry of Economic Development and Trade), Prime-Tass, May 12, 2006, <<http://www.prime-tass.ru>>. [3] Yekaterina Blinova, Dmitriy Simakin, “Mesyats borby s korruptsiyey stal rekordnym po kolichestvy VIP-posadok” (A month of anti-corruption fight hit the record of VIP arrests), *Nezavisimaya gazeta* online edition, June 19, 2006, <<http://www.ng.ru>>. [4] “Stenograficheskiy otchet o soveshchaniy s chlenami pravitelstva” (Verbatim records of the meeting with government members), April 10, 2006, President of Russia website, <http://www.kremlin.ru/appears/2006/04/10/1626_type63378type63381_104350.shtml>. [5] “Poslaniye Federalnomu Sobraniyu Rossiyskoy Federatsii” (Address to the Federal Assembly of the Russian Federation), May 10, 2006, President of Russia website, <<http://www.kremlin.ru/sdocs/appears.shtml?type=63372>>. [6] Presidential Edict No. 473 of May 11, 2006, “Voprosy Federalnoy tamozhennoy sluzhby” (Issues of the Federal Customs Service), President of Russia website, <<http://www.kremlin.ru>>. [7] Directive No. 682-r of May 12, 2006, “O Zherikhoye A.Ye.” (On A.Ye. Zherikhov), Governm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website, <<http://www.government.ru>>. [8] Directive No. 683-r of May 12, 2006, “O rukovoditele Federalnoy tamozhennoy sluzhby” (On the head of the Federal Customs Service), Governm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website, <<http://www.government.ru>>. [9] Directive No. 688-r of May 12, 2006, “Ob Azarove Yu.F.” (On Yu.F. Azarov), Governm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website, <<http://www.government.ru>>. [10] Directive No. 689-r of May 12, 2006, “O Lozbenko L.A.” (On L.A. Lozbenko), Governm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website, <<http://www.government.ru>>. [11] Directive No. 749-r of May 26, 2006, “O zameshitelya rukovoditelya Federalnoy tamozhennoy sluzhby” (On the deputy head of the Federal Customs Service), Governm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website, <<http://www.government.ru>>. [12] Directive No. 750-r of May 26, 2006, “O zameshitelya rukovoditelya Federalnoy tamozhennoy sluzhby” (On the deputy head of the Federal Customs Service), Governm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website, <<http://www.government.ru>>. [13] “Fradkov uvolil eshche odnogo zameshitelya nachalnika tamozhni” (Fradkov sacked another deputy head of customs), *Gazeta.ru*, June 15, 2006, <<http://www.gazeta.ru>>. [14] Andrey Tsyganov, Dmitriy Butrin, “Tamozhnya menyaet rasstanovku silovikov” (Customs changes the configuration of the security officials), *Kommersant Publishing House* (Russia), June 17, 2006; in RATEK Association website, June 19, 2006, <<http://www.ratek.org>>. [15] “Top Russian Customs Official May Resign—Source,” *Interfax*, June 16, 2006, <<http://www.interfax.ru>>. [16] “Novym rukovoditelem FTS Rossii naznacheni Andrey Belyaninov” (Andrey Belyaninov appointed new FCS head), *RIA Novosti*, May 12, 2006, <<http://www.rian.ru>>. [17] Russia’s Federal Service for Arms Procurement website, <<http://www.fsoz.gov.ru>>.

불법 밀매

우즈베키스탄서 방사능 고철 압수돼

우즈베키스탄 세관위원회 (State Customs Committee of Uzbekistan [SCC]) 는 2006년 5월 11일 미량의 세슘-137 (cesium-137) 으로 오염된 다량의 아연 선적물을 압수했다고 발표했다. [1,2,3] 15,386kg에 달하는 이 화물은 투르크메니스탄 접경 지역인 우즈베키스탄 남부 부카라 지역의 알라트 세관 검문소에서 검문소에 설치된 러시아제 얀타르 방사능 탐지시스템 검색대를 통과하던

중 적발되었다. [2] 세관 당국자들이 소형 기기로 직접 화물을 검사한 결과 컨테이너 근방 1.5m 내의 방사능 수치가 시간당 240~300 마이크로렌트겐으로 (microroentgen per hour) 나타났다. 이는 자연상태 방사능 수치인 시간당 17~20 마이크로 렌트겐의 12~20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세관위원회 (SCC) 는 컨테이너에서 2.5m 떨어진 위치에서는 방사능 수치가 안전 범위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후 해당 화물은 특별 격리 구역 (specially designated isolation area) 으로 옮겨 졌다. [2,4] 세관 당국자가 화물 서류를 조사한 결과, 해당 화물이 “아연 분말 (zinc dust), 아연 가루 (zinc powder), 아연 박편 (zinc scales) 등 산화아연 (sublimated and oxidized zinc)” 이라고 표기되어 있었고, 카자흐스탄에서 출발하여 우즈베키스탄을 거쳐 이란으로 가는 중이었다. 세관 당국이 금속 조각 샘플을 우즈베키스탄 핵물리 연구소로 보내 분석한 결과, 해당 아연이 미량의 세슘-137 방사선 핵종을 함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2,4]

2002년 4월 5일자로 발효된 “폐기물에 관한” 법률 362-II호에 따라 세슘-137를 포함한 화물은 무조건 “위험 화물”로 분류된다. 또한 이러한 화물을 싣고 우즈베키스탄 영토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유해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바젤 협약 (Basel Convention on the Control of Transboundary Movements of Hazardous Wastes and Their Disposal) 과 “특수 화물과 파견 부대의 이전에 관한” 우즈베키스탄 법률에 규정된 대로, 반드시 우즈베키스탄 내각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편집자 주: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은 모두 바젤 협약의 조인국이다.] [2,3]

우즈베키스탄 수사당국이 이 사건에 대한 예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카자흐스탄 수출업체 -카자흐스탄 북부 파블로다르에 소재한 야금 기업인 캐스팅 LLP (Casting LLP) - 가 우즈베키스탄 영토를 허가 없이 통과하기 위해 세관 화물신고서, 명부 (waybill), 운송 명부, 위생역학 증명서 (sanitary-epidemiological certification form), 품질 증명서 등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즈베키스탄 수사 당국은 이 사고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2,3]

세관위원회 (SCC) 는 이 사건에 관한 언론 발표 자리에서 또 다른 방사능 물질 불법 이전 사건에 관해 언급했다. 세관위원회는 이를 적발한 날짜와 지역 등은 밝히지 않았으나, “산화 몰리브덴 (oxidized molybdenum)” 이라고 적힌 화물을 싣고 카자흐스탄을 출발하여 타지키스탄으로 향하던 차량이 타쉬켄트 지역의 세관 검문소에서 붙잡혔다고 발표했다. 이 사건도 알라트 사건의 경우와 유사하게 세관 검문소에 설치된 방사능 탐지 시스템의 경보가 울리면서 발각되었다. 핵물리 연구소에 샘플을 보내 분석한 결과, 금속 조각 화물이 미량의 라듐-226, 우라늄-234, 우라늄-238, 토륨-234 등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우즈베키스탄 수사 당국은 이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1,2,3,4]

편집자 주: 세슘-137 (Cesium-137) 은 산업과 의료 분야에서 다양하게 사용되는 방사능 핵종이다. 세슘-137의 반감기는 30년이며, 감마 방사선을 방출하기 때문에 신체 내 외부에 해를 끼칠 수 있다. 그러나, 세슘-137을 함유한 방사능원이 “더러운 폭탄 (dirty bomb)” 과 같은 강력한 방사능 살포 장치 (radiological dispersal device [RDD]) 의 연료로 사용된다면, 적어도 100 큐리 이상의 세슘-137을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수사 당국은 이번에 압수된 화물에 실린 세슘-137이 매우 적은 양이라고만 했을 뿐 정확한 양은 밝히지 않았으나, 방사능 살포 장치에 이용될 만큼 충분한 양은 아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라듐-226은 우라늄-238이 붕괴되어 만들어지는 것으로, 1,602년의 반감기를 가지고 있어, 라듐 핵종 중 가장 오래 지속되며 자연 상태에 가장 흔하게 존재하는 알파선 방사 핵종이다. 100 큐리 이상의 라듐-226을 함유한 방사능원을 흡입, 주입, 섭취하거나 보호장비 없이 노출되었을 경우, 인체에 심각한 해를 입을 수 있다. 라듐-226이 인체 내로 들어가면 골수 속에 침전되어 암이나 피부염 또는 기타 질환의 원인이 된다. 라듐-226이 붕괴되면서 발생하는 라돈 가스 (radon gas) 를 다량 접하는 것도 인체 손상의 원인이 된다. [5]

우라늄-234는 전체 천연 우라늄의 0.0055%를 차지하는 핵종으로, 반감기는 245,000년이다. 우라늄-234는 미량의 알파 방사선을 방출하며, 공중 보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지는 않는다. [6]

천연 우라늄의 대부분 (99.3%) 을 차지하는 우라늄-238은 반감기가 매우 길기 때문에 (45억년) 비교적 위험하지 않다. 금속 조각 화물에서 발견된 미량의 우라늄-238이 천연 우라늄이었는지 아니면 열화우라늄 (depleted uranium) 이었는지는 현재 공개되지 않고 있다. 열화우라늄은 우라늄-235의 함유량이 천연 우라늄보다 낮은 우라늄으로, 엑스레이 장비의 차폐 케이스 (shielding cases) 나 범선과 항공기의 밸러스트 (ballasts) 와 같은 비핵장치 (non-nuclear applications) 에 주로 사용된다. 이는 천연 우라늄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체에 덜 위험하나, 몇 마이크로그램 이상의 양을 삼키거나 흡입했을 경우, 심각한 금속 중독 (metal poisoning) 이나 신장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토륨-234는 우라늄-238의 미량의 방사성동위원소 (즉, 자연적인 붕괴생성물) 로써, 24.1일의 반감기를 가지며, 비교적 빨리 베타 방사선을 방출한다. 분무된 토륨-234에 노출될 경우, 폐, 체장, 혈액 등의 암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이를 섭취할 경우, 간 질환 유발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그러나 토리움-234가 미량의 방사성 동위원소이므로 이것이 심각한 인체 질환을 유발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7]

Sources: [1] "Uzbekistan Seized Radioactive Materials," UzReport Business Information Portal, May 11, 2006, *Journal of Turkish Weekly* (online edition), <<http://www.turkishweekly.net>>. [2] "Tamozhenniye sluzhby Uzbekistana vyavili fakty kontrabandy radioaktivnykh veshchestv" (Customs services of Uzbekistan uncovered the facts of contraband of radioactive substances), REGNUM Information Agency, May 11, 2006, <<http://www.regnum.ru>>. [3] "Uzbekistan seizes radiation contaminated scrap metal en route to Iran-agency," Interfax-Kazakhstan news agency, May 11, 2006, in Lexis-Nexis Academic Universe, <<http://www.lexis-nexis.com>>. [4] "V Uzbekistan vvozili radioaktivniy gruz" (Radioactive cargo was being brought into Uzbekistan), Agentstvo Politicheskikh Novostey (Agency of Political News) APN-Kazakhstan, May 11, 2006, <<http://www.apn.kz>>. [5] "Radium," Wikipedia (on-line encyclopedia), <<http://en.wikipedia.org/wiki/Radium>>. [6] "Uranium-234," Wikipedia (on-line encyclopedia), <<http://en.wikipedia.org/wiki/Uranium-234>>. [7] "Thorium," Wikipedia, (on-line encyclopedia), <<http://en.wikipedia.org/wiki/Thorium>>.

절도범들, 군 기지에 보관된 RTGs 노려

노르웨이에 근거를 둔 환경단체 벨로나 파운데이션 (Bellona Foundation) 은 2006년 5월 19일 방사능동위원소 열 발전기 (Radioisotope Thermal Generators [RTGs]) 관련 사고가 두 달 전에 발생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Ye. V 이바노프 (Ye. V. Ivanov) 러시아 시베리아구역 군 검찰관의 서한을 대중에 공개했다. 벨로나 (Bellona) 는 2006년 4월 12일 자신들의 웹사이트 상에 2006년 3월 말에 절도범들이 러시아 크라노야르스크 크레이의 노릴스크 근처 지역에 방치된 8대의 방사능동위원소 열 발전기 (RTGs) 중 4대를 떼어갔다고 보도한 바 있다.

벨로나의 2006년 4월 보도에 따르면, 각각 170,000큐리의 방사능을 가진 스트론튬-90 방사능원을 함유한 Gorn 타입의 RTGs는 원래 어느 특수 장비의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러시아 국방부가 1992년 노릴스크 에서 남쪽으로 6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육군 96211 부대 (모스크바 오블라스트의 두브나 근교에 본부가 있음) 의 지부에 배치한 것이었다. 이바노프 (Ivanov) 검사는 이후 서한에서, 해당 RTGs가 지진 감시 시설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었다고 확인했다. Branch 지진 감시 시설은 예산 부족 문제로 2005년 말 다른 장소로 이전되었으나, RTGs는 원래 장소에 방치된 채로 있었다. [1]

이바노프 검사의 2006년 3월 21일자 서한에 따르면, 카이예르칸 주변 마을 주민들이 불법적으로 96211부대의 자동화 지진 시설 내로 들어가, 4대의 RTGs를 분해하고 레디에이터 소켓 (radiator sockets), 전압 리미터 (voltage limiters), 연결 케이블 등의 비 방사능 부품 (non-radioactive parts) 들을 훔쳤다. 그에 따르면, 방사능원은 손상되거나 도난 당하지 않았으며, 주변 지역의 방사능 오염도 없었다. 그는 2006년 3월 24일자 서한에서, 러시아 형법 158조 3부 "절도" 조항에 의거하여 카이예르칸 경찰이 이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였다고 밝혔다. 그는 도난 당한 물자를 모두 회수하였다고 밝혔으나, 범인이 체포되었는지 여부는 언급하지 않았다. 한 당국자에 따르면, 시베리아 구역 군 검찰청은 46179 부대와 96211 부대의 사령관들에게 지진 시설의 보안을 강화하고 방사능원을 해체, 처분할 것을 명령했다. [2]

러시아 환경, 기술, 원자력 관리국 (Federal Service for Environmental Technological and Atomic Supervision) 혹은 로스테크나쩌 (Rostekhnadzor) 의 시베리아 지부 블라디미르 프릴레프스키쉬 (Vladimir Prilepskiikh) 대표는 벨로나와의 인터뷰에서, 기존에 고사톰나쩌 (Gosatomnadzor) (로스테크나쩌의 전신) 가 가지고 있던 핵방사능 안전 감시 책임이 1995년에 국방부로 이전 되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로스테크나쩌가 군 관련 RTGs를 관리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편집자 주: 1990년대에 말까지, 항로 표지 (navigational beacons), 등대, 통신 관련 시설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러시아 북부와 극동 지역에 1,000 대의 소비에트 산 RTGs 가 설치되어 있었다. 지난 몇 년간, 이들 방사능원을 비 방사능 장치로 교체하려는 국제적 노력이 꾸준히 계속되었다. 그러나, 수 백대의 RTGs가 아직도 러시아 내에 남아있다. 이들 RTGs가 설치된 곳이 워낙 멀고 보안이 허술한 탓에 절도범들에게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전에 있었던 RTGs 절도 사건과 국제적 지원 노력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은 NIS Export Control Observer 2005년 3월호, 15~17페이지의 "RTG 폐쇄와 교체에 관한 오슬로 워크숍"; NIS Export Control Observer 2004년 5월호, 8~9페이지의 "러시아 북부 지역에 산재한 RTGs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점증해"; NIS Export Control Observer 2004년 2월호, 13~14페이지의 "무르만스크 근처에서 강력한 방사능원 절도, 폐기 사건 발생해"; NIS Export Control Observer 2003년 12월/2004년 1월호 18~24페이지의 "2003년 NIS 내에서 발생한 핵, 방사능 핵종, 이중용도 물질 밀매사건 요약"; NIS Export Control Observer 2003년 6월호, 4~5페이지의 "미국이 러시아 내 핵 등대시설의 교체를 지원해" 등의 기사를 참조하십시오. <<http://www.cns.miis.edu/pubs/nisexcon/index.htm>>

Sources: [1] Rashid Alimov and Vera Ponomareva "Chernyobyl-like Slovenliness Today: RTGs are Being Vandalized Near Norilsk," Bellona Foundation website, April 12, 2006, <www.bellona.no/en/international/russia/navy/northern_fleet/incidents/42729.html>. [2] Rashid Alimov, "Military Prosecutors Share Bellona's Concern over Vandalised RTG", Bellona Foundation website, May 19, 2006, <www.bellona.no/en/international/russia/navy/northern_fleet/incidents/43019.html>.

남아시아에서 두 건의 핵 물질 밀매 사건 발생

2006년 4월과 5월에 각각 인도와 방글라데시에서 핵 관련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 사건은 핵 물질과 관련 기술을

획득하려는 비 국가 행위자 (non-state actors)의 활동에 대한 통제력 부재 문제를 드러냈다.

2006년 4월 11일 인도 경찰은 우라늄으로 보이는 분말 1kg을 판매하려 한 혐의로 아삼 주의 구와하티에서 세 명의 용의자를 체포했다. 체포된 이들은 각각 디렌 바할리 (Dhiren Bharali), 크리슈나 다스 (Krishna Das), 니롤 다스 (Nirol Das) 등 세 명이며, 압수된 물질의 포장 겉면에 붙은 설명서에는 이 물질이 핵 발전시설의 연료로 사용되는 “농축 우라늄”이라고 쓰여 있었다. 또한 이 물질이 메갈라야 지역의 실롱 시에 위치한 인도 원자력 에너지부 산하 연구 시설에서 흘러나온 사실도 명기되어 있었다. [편집자 주: 아삼과 메갈라야는 인도 북동부에 위치한 인접 지역이다.] 인도 당국은 반 가공 우라늄 (semi-processed uranium) 또는 “우라늄 정광 (yellow cake)”으로 보이는 해당 물질의 성분 분석을 위해 이를 연구 기관으로 보냈으며, 아직 결과는 발표되지 않았다. [1,2]

검사 결과, 만약 해당 물질이 실제로 실롱의 연구 시설에서 유출된 반 가공 우라늄으로 드러난다면 실롱 연구 시설의 핵 물질 보안에 관하여 심각한 우려가 제기될 것이다. 정확히 1년 전인 2005년 4월 11일 인도 구와하티 당국이 반 가공 우라늄을 소지한 혐의로 두 명을 체포하였는데, 이 물질 역시 실롱 연구 시설에서 유출된 것이었다. 1993년에도 이 시설에서 97kg에 달하는 우라늄 정광이 도난 당한 바 있다. 당시, 수사를 통해 용의자들이 체포되고 일부 물질을 회수하였으나, 대부분은 물질은 회수되지 않았다. 보다 최근에 압수된 물질들이 1993년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지 여부는 확실치 않다.

2006년 5월 17일 방글라데시 쿨나 당국은 우라늄과 핵 물질 관련 매뉴얼, 안내 CD 등을 판매하려 한 혐의로 한 명을 체포했다. 용의자 - 카틱 찬드라 사하 (Kartik Chandra Saha) 와 카틱 찬드라 로이 (Kartik Chandra Roy) 라는 두 가지 이름을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됨 - 는 방글라데시 특수 경찰 (Rapid Action Battalion [RAB]) 에 의해 체포되었다. [4,5] RAB 당국은 이 사건에 대한 밀고를 받은 후, 용의자와의 접촉을 시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카틱 찬드라 (Kartik Chandra) 는 20억 타카 (3,000만 달러) 상당의 우라늄과 우라늄 사용 방법, 폭발물 조달 창구 등을 설명한 매뉴얼과 CD 등의 거래를 제의했다. [4,5]

방글라데시에서 발생한 사건에 관하여 일부 사실이 공개되었으나 우라늄과 안내 매뉴얼의 출처가 어디인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인도 언론 Vijay Karnataka (Vijay Times) 는 5월 17일 방글라데시 사건이 있기 전 네팔과 방글라데시가 인도 산 핵물질의 불법 운송 허브 (hubs) 가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해당 언론은 2006년 4월 30일자 보도 - 독립적으로 보강되지는 않았음 - 를 통해, 핵 물질 밀매자들이 주로 마약 밀매자들이 사용하는

인도 북동부 경로를 통해 우라늄 정광 (yellow cake) 과 다른 핵 물질을 운송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보도에서는 또한 핵 물질의 수령자가 알 카에다 (al Qaeda) 관련 조직일 것이라고 지목했다. 보도에 따르면, 밀매되고 있는 물질들은 인도 북동부 자칸 지역에 위치한 인도우라늄 회사 (Uranium Corporation of India, Limited [UCIL]) 에서 훔쳐낸 것이다. [6] 그러나, 이러한 종류의 보도는 수년간 주기적으로 있었으며, 종종 과장된 사실도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7]

Sources: [1] “Three Arrested in Assam for Allegedly Possessing Uranium,” Indo-Asian News Service, April 12, 2006; in Lexis-Nexis Academic Universe, <<http://www.lexis-nexis.com>>. [2] “Thefts of Uranium Samples Cause Concern,” *Hindustan Times*, April 13, 2006; in Lexis-Nexis Academic Universe, <<http://www.lexis-nexis.com>>. [3] Subir Bhaumik, “India Foils Uranium Theft ‘Plot’,” BBC News, April 11, 2005, <<http://news.bbc.co.uk>>. [4] “Bangladeshi Man Arrested in Suspected Uranium Scam,” Agence France Press, May 18, 2006; in Lexis-Nexis Academic Universe, <<http://www.lexis-nexis.com>>. [5] “Man Held with CD Detailing Basic Nuke Info,” *Daily Star* online version, May 16, 2006, <<http://www.thedailystar.net>>. [6] Amlan Home Chowdhury, “Is Al-Qaeda Getting Jharkhand Uranium?” *Vijay Times* (Bangalore), April 30, 2006; in OSC Document SAP20060502378007. [7] Haider Nizamani and Arjun Dutta, “Smuggling of Uranium From India: Stories Persist,” *WMD Insights*, June 2006, <http://wmdinsights.org/16/16_SA2_SmugglingOfUranium.htm>.

국제지원프로그램

EU와 러시아, 러시아의 이중용도 물자 수출통제 강화를 위한 공동 프로젝트 개시

러시아 주재 유럽위원회 (European Commission [EC]) 대표단은 2006년 5월 18일, “러시아 연방의 이중용도 물자 수출통제 강화” 라는 제목의 유럽연합-러시아 간 공동 프로젝트의 공식 개시를 알리는 회의를 개최했다. [1] 이날 회의에는 독일 경제수출통제청 (Federal Office of Economy and Export Control [BAFA]) 청장을 맡고 있는 버나드 하이처 (Bernhard Heitzer) 박사, 대량살상무기 (WMD) 비확산을 위한 EU 이사회 특별대표국 (EU Council’s Office of the Personal Representative to the High Representative for Nonproliferation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의 조정 업무를 맡고 있는 안드레아스 스트럽 (Andreas Strub), 독일 경제기술부 (German Federal Ministry of Economics and Technology) 의 귄터 스프웨겔 (Guenther Sproegel), 독일 경제수출통제청 (BAFA) 부청장 올라프 시몬슨 (Olaf Simonsen) 등의 유럽연합 대표들이 참석하였다. [2]

프로젝트의 목표는 이중용도 물자에 관한 러시아의 수출통제 효율성을 높이고, 크게 다음 세 가지 영역에서의 다양한 활동들을 구체화시키는 것이다.

- (1) 수출통제 영역에서의 법규 체제의 강화;
- (2) 유럽과 러시아 수출통제 당국 사이의 정보 교환 활성화를 포함하여, 관련 러시아 수출통제 당국의 역량 강화;

- (3) 이중용도 수출통제 관한 업계와 학계의 인식 제고를 비롯하여, 수출통제 분야에서 정부-산업계 간의 협력 강화 [3]

수출통제 프로젝트는 EU 대(對) 독립국가연합 (CIS) 기술원조 프로그램 (Technical Assistance to the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TACIS]) 의 틀 하에서 이행될 예정이다. 러시아와 EU는 UN 안정보장이사회 결의안 1540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540 [UNSCR 1540]) 과 EU의 “반 (反) 대량살상무기 확산 전략 (Strategy Against WMD Proliferation)” 에 기반하여, 이 프로젝트를 통해 러시아와 EU 간의 경제적 관계를 보다 긴밀히 하고, 러시아가 국제경제에 보다 원활히 융합되도록 하며, 대량살상무기 (WMD) 와 관련 물질, 장비, 기술 등의 확산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1,3] 이 프로젝트는 36개월 간 진행되어 2008년 11월에 완료될 예정이며, 총 300만 유로 (380만 달러) 가 소요될 전망이다. [3] 프로젝트의 위탁 조건 (terms of reference) 에 따라, 러시아 주재 EU 대표단이 제 1순위 접촉 당국을 맡고, 독일 경제수출통제청 (BAFA) 이 러시아 측 파트너인 러시아연방 기술수출통제국 (FTECS) 과 협력하여 프로젝트 실행을 위한 EU 자문단의 책임을 맡게 된다. 올라프 시몬슨 (Olaf Simonsen) BAFA 부청장과 또다른 BAFA 당국자인 이리나 알브레흐트 (Irina Albrecht) 가 EU 측의 프로젝트 조정 책임을 맡게 되고, 러시아 측에서는 세르게이 야키모프 (Sergey Yakimov) FTECS 부국장이 프로젝트 총책임자로 지명되었다. [1,2,3,4]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업계와 과학계의 관계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수출통제 가이드북이 발간될 것이다. [3,4] 프로젝트 스케줄에 따르면, 가이드북은 2006년 9월부터 2007년 6월까지의 준비 기간을 거쳐 2007년 7월에는 발간될 예정이다. [3,4] 또한 아직 구체적인 기능은 뚜렷이 정해지지 않았으나, 온라인 정보 센터도 구축될 예정이다. [3,4]

러시아 주재 EU 대표단을 이끌고 있는 마르크 프랑코 (Marc Franco) 대사는 프로젝트 개시 회의에서, 이번 프로젝트가 공동경제구역 (Common Economic Space [CES]) 의 전망 속에서 러시아와의 균형 잡힌 경제적 관계를 발전시키고, 공동대외안보구역 (Common Space of External Security) 의 창설을 통해 특히 WMD 비확산과 같은 국제적 안보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EU의 약속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5] 야키모프 (Yakimov) FTECS 부국장 역시 연설을 통해, 이번 프로젝트가 WMD 확산과 국제 테러리즘에 공동으로 맞서기 위해 고안된 EU의 대 (對) 독립국가연합 (CIS) 기술원조 프로그램 (TACIS) 이 지원하는 최초의 프로젝트라고 지적했다. [6] 야키모프 부국장은 EU 원조에 관한 또 다른 언론 인터뷰를 통해, “우리는 두 마리의 소에서

동시에 젖을 짜내려는 것이 아니다. 이중용도 물자의 수출에 대한 러시아의 통제 시스템 구축에 있어, 유럽과 미국의 참여는 우리에게 있어 모두 영광스러운 일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7]

이 프로젝트의 공식 내용은 EU 대외 프로젝트 웹사이트 <http://www.eu_outreach.info/public/tacis_project/pdf/tacis_project_presentation.pdf> 에서 찾아볼 수 있다. 프로젝트 일정표 시안 (tentative timeline) 역시 같은 웹사이트의 <http://www.euoutreach.info/public/download/tacis/kickoff_presentation_albrecht.pdf> 에서 확인할 수 있다.

Sources: [1] “EU and Russia Set to Work Together on Export Control of Dual Use Items,” Delegation of the European Commission in Russia, Press Release, May 10, 2006; in EU-Outreach-Projects website, <http://www.eu-outreach.info/public/download/press_release/press_release_russia_2006_may_10_en.pdf>. [2] Project Kick-Off Meeting “Export Control of Dual Use Items,” Meeting Agenda, May 18, 2006; in EU-Outreach-Projects website, <http://www.eu-outreach.info/public/download/tacis/kickoff_agenda_en.pdf>. [3] TACIS Project 2006-2008, “Enhancement of the Export Control of Dual Use Items in the Russian Federation,” Federal Office of Economics and Export Control (BAFA), 2006; in EU-Outreach-Projects website, <http://www.eu-outreach.info/public/tacis_project/pdf/tacis_project_presentation.pdf>. [4] “Export control of dual use items: Russian Federation,” PowerPoint Presentation by the EU Project Leader, Irina Albrecht (BAFA) at the Kick-off meeting for the joint EU-Russia project on enhancing Russia’s export control of dual-use items, May 18, 2006; in EU-Outreach-Projects website, <http://www.eu-outreach.info/public/download/tacis/kickoff_presentation_albrecht.pdf>. [5] Address by H.E. Marc Franco, Launching Conference for Project “Export Controls of Dual-use Items,” EC Delegation to the Russian Federation, May 18, 2006; in EU-Outreach-Projects website, <http://www.eu-outreach.info/public/download/tacis/kickoff_speech_franco.pdf>. [6] Address by Mr. Sergey F. Yakimov, Russian Federal Technical and Export Control Service, Russian Project Leader, May 18, 2006; in EU-Outreach-Projects website, <http://www.eu-outreach.info/public/download/tacis/kickoff_speech_yakimov.pdf>. [7] Sergey Kulikov, “Dvoynoy evrokontrol” (Double eurocontrol), *Nezavisimaya gazeta* online edition, May 19, 2006, <http://www.ng.ru/economics/2006-05-19/4_evrokontrol.html>.

미국, 타지키스탄 국경보안대에 물자 기증

2006년 3월 10일, 타지키스탄 국경보호위원회 (Tajik State Committee on State Border Protection [SCSBP]) 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장비 기증식이 타지키스탄의 두산비에서 열렸다. 이들 기증 장비는 총 523,000 달러 규모로, 5대의 카마즈 트럭 (Kamaz trucks), 10대의 헌터 트럭 (Hunter trucks), 6대의 밀수품 탐지 키트 (contraband detection kits) 등이다. 이번 기증은 미 국무부 산하 국제마약수사국 (Bureau of International Narcotics and Law Enforcement [INL]) 이 *타지키스탄/아프가니스탄 국경 통제 강화 프로젝트 (Strengthening Control along the Tajik/Afghan Border project)* 하에서 진행한 기술적 지원의 일환이다. 이 프로젝트는 UN 마약범죄국 (United Nations Office for Drugs and Crime [UNODC]) 이 주관하고 있다. 이번 기증식에는 타지키스탄 주재 미국 대사관의 덴버 플레밍 (Denver Fleming) 사법 분야 수석 고문 (Senior Law Enforcement Adviser) 과 타지키스탄 국경보호위원회 (SCSBP) 의 무자파르 압둘로예프 (Muzaffar Abdulloyev)

부의장, UN 마약범죄국 (UNDOC) 의 세르게이 보즈코 (Sergey Bozhko) 지역프로그램 책임자 등이 참석하였다. [1,2]

UN 마약범죄국 (UNDOC) 의 *타지키스탄/아프가니스탄 국경 통제 강화 프로젝트*는 1999년 아프가니스탄 접경 지역의 주요 검문소와 타지키스탄의 주요 공항, 기차역 등에 배치된 타지키스탄 법 집행기관을 지원할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이들은 마약 밀매자의 확인과 차단; 타지키스탄과 러시아 군의 국내 압수 마약 처분의 용이화; 타지키스탄 영토 내 국경통제 검문소와 철도역, 공항 등에서 탐색견 (sniffing dogs) 이용의 강화 등을 지원하고 있다. [3]

Sources: [1] "U.S. Provides Assistance to Tajik Border Guards," May 10, 2006, U.S. Embassy in Tajikistan Press Release, <http://tajikistan.usembassy.gov/pt_051006.html>. [2] Anvarbek Siddikov, "Tekhnicheskaya pomoshch SShA tadjhikskim pogranchnikam" (U.S. technical assistance to Tajik border guards), Khovar New Agency (Tajikistan), May 11, 2006, <<http://www.khovar.tj>>. [3] "United Nations Office for Drugs and Crime (UNODC)," Donor Coordination in Tajikistan website, <http://www.unj.org/donors/profiles_text?id=37>

미국과 한국, 카자흐스탄 해군과 국경 방위 보장 지원

존 오드웨이 (John Ordway) 카자흐스탄 주재 미국 대사는 2006년 5월 18일 카스피해 연안의 항구도시 악타우에서 열린 기증식에서, 카자흐스탄 안보위원회 (Kazakh National Security Committee [KNB]) 국경수비국 산하의 카스피해 해양국경방위부 (Caspian naval border defense division of the regional directorate) "바티스 (Batys)"에게 200만 달러 상당의 장비를 전달했다. [1,2,3] [편집자 주: 카자흐스탄 국경수비국은 코스타나이 (북부 카자흐스탄) 지역의 "솔투스틱 (Soltustik)" (북부) 과 사리아가쉬 (남부 카자흐스탄) 지역의 "온투스틱 (Ontustik)" (남부), 악타우 (서부 카자흐스탄) 의 "바티스 (Batys)" (서부), 알타이 (동남부 카자흐스탄) 의 "시기스 (Shygys)" (동부) 등의 지역 담당국 (regional directorates) 으로 구성되어 있다.] 미국 정부는 수출통제 및 관련국경보안 지원프로그램 (Export Control and Related Border Security Assistance Program [EXBS]) 의 일환으로, 미국 해안경비대의 지원을 받아 카자흐스탄에 트레일러를 장착한 세 척의 42피트 (12.8미터) 신속대응경비정 (rapid reaction patrol boat) 과 예비 부품 등을 기증했다. [1]

미국이 기증한 신규 경비정은 워싱턴의 오차드 항구에 소재한 세이프 보트 인터내셔널 (SAFE Boat International) 사가 만든 것으로, 해안선과 해상 국경을 경비하고 무기나 마약 밀매를 단속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특히 이 선박은 카스피 해와 같은 얇은 바다에서 조종성 (maneuverability) 을 강화하도록 특별히 고안된 알루미늄 챔버 (chamber) 선박이다. 오드웨이 (Ordway) 대사에 따르면, 이 배는 시간당 최고 30~32 마일 (대략 시간당 60km) 정도의 속도를 낼 수 있다. 2005년 여름 카자흐스탄 해안 국경

경비대 소속 네 명의 직원이 오차드 항구의 선박 제조공장을 견학하고, 신속대응경비정의 기술적 특성 파악과 정비 등에 필요한 기술 교육을 받은 바 있다. [1,2,3]

오드웨이 대사는 기증식에서 가진 연설을 통해, 새로운 경비정이 카스피 해에서 카자흐스탄의 국경 방위 활동과 수사 능력을 보장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크림베크 쿠셰르바예프 (Krymbek Kuserbayev) 망기스타우 오블라스트 (Mangistau Oblast) 아킴 (akim) (지역 정부 수령) 은 수출통제와 관련 국경 보안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과의 협력은 국제 테러리즘과 기타 다국적 위협 등에 대항하고 평화 유지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미국-카자흐스탄 간의 협력관계에 있어 매우 필수적인 요소라고 역설했다. [1] 기증된 경비정들은 카스피 해 북부의 러시아 연방 접경지역인 아티라우 지역으로 보내질 것으로 보이며, 아티라우의 항구도시에 주재하고 있는 해안 국경 방위 담당의 세 부서가 이를 사용할 전망이다. [1]

이와 함께, 2006년 5월 16일 카자흐스탄 국방부와 한국 국방부는 군사교류협정에 서명했다. 이 협정에 따라, 한국은 카자흐스탄 군인을 대상으로 장교 교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카자흐스탄 육군과 해군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제공하게 된다. 이번 합의는 한국 군 대표단이 카자흐스탄을 방문한 2006년 5월 15~17일 기간 중 이루어졌다. [2,4,5] 방문 기간 동안, 한국 당국자들은 카자흐스탄 주요 당국자들은 면담하고 군사 시설을 방문했다. 이에 앞선 2006년 5월 5일, 한국 정부는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터키 펜딕 항에서 세 척의 경비정을 카자흐스탄 측에 인도했다. 5월 초 현재, 터키 해군이 카자흐스탄을 도와 이들 경비정을 카스피 해에 위치한 악타우 항으로 이송 중이다. 이 경비정들은 카스피 해에 위치한 석유 시설의 보호에 사용될 예정이다. [2,4,5]

Sources: [1] "SShA peredali Pogranchnoy sluzhbe RK tri katera" (USA transferred three patrol boats to the Border Service of Republic of Kazakhstan), Kazakhstan Today News Agency, May 18, 2006; in Gazeta.kz, <<http://www.gazeta.kz>>. [2] Roger McDermott, "Kazakhstan Boosting Caspian Security," Eurasia Daily Monitor, May 23, 2006, The Jamestown Foundation website, <<http://jamestown.org/edm/index.php>>. [3] "US Gives Kazakh Border Guards Three New Patrol Boats," Interfax-Kazakhstan, May 18, 2006; in OSC Document CEP20060518950061. [4] "Kazakhstan poluchil ot Yuzhnoy Korei tri voyennykh katera" (Kazakhstan received three military patrol boats from South Korea), RosBusinessConsulting News Agency, May 5, 2006; in Utro.ru website, <<http://www.utro.ru>>. [5] "Koreya peredala Kazakhstanu voyennye katera" (Korea transferred military patrol boats to Kazakhstan), ForUm (Ukrainian online newspaper), May 5, 2006, <<http://www.for-ua.com>>.

러시아, 다제스탄에 방사능탐지장비 설치돼

다제스탄 통신사에 따르면, 2005년 5월, 러시아 연방 다제스탄 공화국의 마카즈칼라 국제공항 (International airport of Makhachkala) 에 신형 얀타르 방사능 탐지시스템 (new-generation Yantar radiation detection system) 이

설치되었다. 다제스탄 세관 사무소 (러시아 연방 세관국의 남부 지역 담당 사무소) 의 조바 아미르카노바 (Zova Amirkhanova) 대변인에 따르면, 새로 설치된 장비는 기존의 것보다 감도가 강해 보다 미세한 양의 방사능 물질도 감지할 수 있다. 마카츄칼라 국제공항에 설치된 러시아제 얀타르 시스템은 미국 에너지부 국가핵안보국 (U.S. National Nuclear Security Administration [NNSA]) 이 제 2차 방어선 (Second Line of Defense [SLD])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제공한 것이다. [1]

편집자 주: 제 2차 방어선 (SLD) 프로그램은 발틱 지역과 중동부 유럽, 중앙아시아, 그리고 지중해 지역의 핵심 환적 국가와 러시아 내의 주요 철도, 공항 등 출입포인트를 통한 핵 방사능 물질의 불법 밀매를 방지하기 위해 1998년 도입된 것이다. 미국 정부는 SLD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SLD 참여국들에게 방사능 탐지 장비를 제공, 유지해 주며, 해당국 당국자들을 상대로 장비의 사용법을 교육하고 있다. [2,3]

Sources: [1] "Na tamozhennykh postakh Dagestana ustanovleno oborudovaniye po poisku radioaktivnykh tovarov" (Equipment designed to detect radioactive items installed at Dagestan's customs checkpoints), Dagestan News Agency (Russia), May 19, 2006, <<http://www.riadagestan.ru>>. [2] "Interdicting Nuclear Smuggling: Second Line of Defense Program," Nuclear Threat Initiative website, <http://www.nti.org/e_research/cnwm/interdicting/second.asp>. [3] "Second Line of Defense Program," Office of Defense Nuclear Nonproliferation, National Nuclear Security Administration website, <<http://www.nnsa.doe.gov/na-20/sld.shtml>>.

금수 및 제재조치

미국 정부, 리비아와 베네수엘라에 대한 무역제한 수준 (Trade Restriction Status) 변경해

2006년 5월 15일, 미 국무부는 미 정부가 자신들의 반 테러리즘 노력에 동참하고 있다고 평가한 여러 국가들에 대한 외교상, 무역상 지위를 변경한다고 발표했다. 이 기사는 이들 변경 대상국 중 가장 주목할 만한 리비아와 베네수엘라의 지위 변경에 대하여 조명하였다.

리비아

곤돌리자 라이스 (Condoleezza Rice) 미 국무장관은 2006년 5월 15일 리비아를 미국의 "테러리즘 후원국 (State Sponsors of Terrorism [SST])" 목록에서 삭제하고, 리비아와의 모든 외교적 관계를 복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리비아가 2003년 테러리즘에 대한 지원과 자국의 대량살상무기 (WMD) 와 탄도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을 모두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1] 이번 양국 관계의 정상화로 1973년 콜로벨 무하마르 엘 카다피 (Colonel Muammar el-Qaddafi) 의 공격 이후 시작된

양국간의 냉각 관계는 종식되었다. 1979년 트로폴리에 위치한 미국 대사관에 약탈과 방화가 일어나면서 양국의 관계가 끊어졌다. 1986년에 발생한 베를린 나이트클럽 폭파 사건에 대해 미국 정부는 카다피 (Qaddafi) 정부가 이를 지원했다고 판단하여 리비아에 보복성 공습을 가했다. 미국은 이후에도 1988년 스코틀랜드 록베리 상공에서 발생한 팬 암 103 항공기 (Pan Am Flight 103) 폭파 사건을 포함하여 여러 대형 테러리스트 사고를 리비아와 연관시켰다. 미국 정부는 리비아를 테러리즘 후원국으로 규정하고 리비아에 대한 여러 차례의 경제 제재와 완전 금수 조치를 취했다. 1992년 유엔안전보장이사회 (UNSC) 는 테러리즘을 지원한 혐의로 리비아에 국제적 제재를 가하는 내용의 결의안 731호와 748호를 통과시키기도 했다. [2,3,4,5]

리비아는 1999년 팬 암 103 항공기 폭파 사건의 용의자로 리비아인 두 명을 넘겨준 것을 계기로 다시 국제 사회로 돌아왔다. (두 명의 용의자는 2001년, 네덜란드 헤이그의 특별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리비아 정부가 2003년 비행기 사고로 희생된 103명의 희생자가족들에게 27억 달러 이상의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한 데 이어, 테러 활동 가담 혐의에 대한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테러리즘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약속함에 따라 UN 안전보장이사회는 리비아에 대한 국제 제재의 수위를 낮추었다. [5,6] 미국, 영국 등과 벌인 협상 이후 8개월만인 2003년 12월 카다피 대통령은 자국의 모든 대량살상무기 (WMD) 와 탄도미사일 관련 프로그램을 폐기하겠다고 선언했다. 리비아 정부는 또한, 암시장을 통해 파키스탄 핵과학자 칸 (A.Q.Khan) 박사로부터 입수한 핵무기 설계 자료를 미국 정부와 국제원자력기구 (IAEA) 에게 넘겨주었다. [7] 미국 정부는 2004년 리비아에 대한 금수조치로 인해 시행되었던 리비아 정부의 자산 동결을 해제하고, 리비아와의 상업 거래와 금융 거래의 재개를 단계적으로 허용하기 시작하였다. [6] 그러나, 미국 정부는 리비아를 여전히 "테러리즘 지원국" 명단에 올려놓았다. 이는 리비아가 미국이 테러리스트 조직으로 지명한 헤즈볼라와 기타 팔레스타인 조직들을 계속 지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미국 수출 관리규정 (EAR) 상 통제품목을 리비아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수출 허가를 받아야 했다.

부시 행정부가 최근 리비아를 "테러리즘 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기로 결정한 것은, 테러리즘과 불법 WMD 밀매망에 대한 대항 활동에 리비아가 지속적으로 지원을 보냈기 때문이다. 미국 법률에 규정된 대로 백악관은 리비아를 테러리즘 지원국 목록에서 삭제할 것을 권고하는 보고서를 미국 의회에 제출했다. 백악관은 리비아를 목록에서 삭제할 것을 요청한 날짜로부터 최소한 45일 전에 이러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리비아가 테러리즘 지원국 명단에서 삭제되면, 리비아

정부는 외국 원조와 무기 수출 자격을 얻게 된다. 이에 덧붙여, EAR이 통제하고 있는 많은 물품에 대해 수출 허가 없이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베네수엘라

미국 국무부는 리비아에 대한 제재를 철회한 반면, 현재 “미국의 반 테러리즘 노력에 완전히 협력하지는 않고 (not fully cooperating [NFC])” 있는 것으로 지명된 베네수엘라에 대해서는 통제를 강화했다. [5,8,9] 미국 무기수출 통제법 (AECA) 상, 미 국무부가 NFC로 지목한 국가는 미국 산 방위 물자와 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되나, “테러리즘 지원국”으로 지목된 국가들에 상응하는 제재를 받지 않는다. 국무부는 베네수엘라가 미국이 “외국 테러리스트 조직”으로 지목하고 있는 두 콜롬비아 그룹 - 콜롬비아 혁명군 (Revolutionary Armed Forces of Colombia [FARC]) 과 민족해방군 (National Liberation Army [ELN]) - 에게 안전 지대를 제공하고 있다고 규정했다. 국무부에 따르면, 차베스 정부는 콜롬비아 혁명군 (FARC) 과 민족해방군 (ELN) 조직원들이 조직을 재정비하고 베네수엘라 산 무기와 탄약을 보급 받기 위해 수시로 베네수엘라 영토를 가로지르는 것을 허용했다. [10] 후고 차베스 (Hugo Chavez)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최근, 미국을 공공연하게 비판하고, 이란과 이라크 내 반란 세력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함으로써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11]

미국이 2006년 10월 1일자로 베네수엘라의 지위를 변경함으로써 베네수엘라에 대한 미국산 방위 물자와 서비스의 수출과 재수출은 금지된다. [9] 현재, 베네수엘라에 수출되는 미국 기업의 방위 물자 규모는 매우 작은 상태이지만, 제 3국에 의한 재수출 가능성이 대두되어 왔다. 미국 정부는 2006년 1월 미국산 항공기와 군함의 베네수엘라 재수출을 신청한 스페인의 수출 신청을 거부하기로 했다고 스페인 정부에 통보했다. 스페인이 허가를 신청한 이 수출 건은 카라카스 (Caracas) 와 마드리드 (Madrid) 간의 거래를 위한 것으로, 총 거래 규모는 12대의 수송기와 8척의 경비정 등 20억 달러에 달하는 것이었다. 미국 정부는 압제적이고,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국가가 미국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용인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13]

Sources: [1] “U.S. Diplomatic Relations with Libya,” *Secretary’s Speeches and Remarks*, May 15, 2006, U.S. Department of State, <<http://www.state.gov/secretary/rm/2006/>>. [2] David I. McKeeby, “U.S. Announces Plans To Restore Diplomatic Ties with Libya, May 15, 2006,” *Washington File*, May 15, 2006, <<http://usinfo.state.gov>>. [3]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 731, January 21, 1992, available at: <<http://www.terrorismcentral.com/Library/NGOs/UnitedNations/SecurityCouncilRes/UN731.html>>. [4]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 748 March 31, 1992, available at: <<http://www.terrorismcentral.com/Library/NGOs/UnitedNations/SecurityCouncilRes/UN748.html>>. [5] Joel Brinkley, “U.S. Will Restore Diplomatic Links with the Libyans,” *New York Times*, May 16, 2006; in Lexis-Nexis Academic Universe, <<http://web.lexis-nexis.com>>. [6] “Significant Events in U.S.-Libyan Rapprochement, May 15, 2006,” *Fact Sheet*, U.S. Department of State Press Releases, May 15, 2006,

<<http://www.state.gov/r/pa/prs/ps/2006/>>. [7] “Libya’s Decision to Eliminate WMD and MTCR-Class Missiles Programs: An International Model, May 15, 2006,” *Fact Sheet*, U.S. Department of State Press Releases, May 15, 2006, <<http://www.state.gov/r/pa/prs/ps/2006/>>. [8] Transcript of Daily Press Briefing, Sean McCormack, May 15, 2006, *Daily Press Briefing*, May 15, 2006, U.S. Department of State Press Releases, <<http://www.state.gov/r/pa/prs/dpb/2006/66267.htm>>. [9] “Venezuela: Not Fully Cooperating with U.S. Anti-Terrorism Efforts,” *Taken Question* (a follow-up press release to the Daily Press Briefing, May 15, 2006), U.S. Department of State Press Releases, May 15, 2006, <<http://www.state.gov/r/pa/prs/ps/2006/66262.htm>>. [10] “Country Reports on Terrorism, Chapter 5—Country Reports: Western Hemisphere Overview,” *Office of the Coordinator for Counterterrorism*, U.S. Department of State, released on April 28, 2006, <<http://www.state.gov/s/ct/rls/crt/2005/64346.htm>>. [11] “Highlights: Venezuelan Leaders’ Statements on US 13-19 May 06,” OSC Report, May 13, 2006; in OSC Document LAP20060520073001. [12] Thomas E. Ricks, “U.S. Ends Arms Sales to Venezuela, Citing Terrorism Fight,” *Washington Post*, May 16, 2006; in Lexis-Nexis Academic Universe, <<http://web.lexis-nexis.com>>. [13] Renwick McLean, “U.S. Bars Spain’s Sale of Planes to ‘Antidemocratic’ Venezuela,” *New York Times*, January 14, 2006; in Lexis-Nexis Academic Universe, <<http://www.lexis-nexis.com>>.

6개 한국기업, 화학물자 불법수출 혐의로 처벌 받아

2006년 5월 29일 한국 산업자원부 (Ministry of Commerce, Industry and Energy [MOCIE]) 는 2005년과 2006년에 6개 한국 기업이 수 차례에 걸쳐 *대외무역법* (*Foreign Trade Act*) 을 위반했다고 발표했다. 일부 기업은 벌금형 처분을 받았으며, 일부는 허가 없이 통제 화학물질을 여러 나라에 수출한 데 대한 경고 조치를 받았다. [1,2,3,4]

산업자원부는 호주 그룹 (Australia Group [AG]) 통제 목록과 일치하는 한국 통제 목록에 등재된 화학 물질에 관한 82건의 수출 내역을 재검토하던 중에 이러한 위반 사실을 알아냈다. 적발된 6개 위반 기업들은 총 38건의 거래에 있어 필요한 수출 허가를 발급 받지 않았다. [4,5] 산업자원부가 불법 거래 사실을 어떻게 알아냈는지는 명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산업자원부는 위반 기업의 기업명은 공개하지 않았으나, 불법 수출에 관한 아래 세 가지의 세부 사항을 공개했다.

- 세 기업이 수출허가 없이 중국으로 황화나트륨 (sodium sulfide) 수출 - 세 기업이 각각 14차례, 9차례, 1차례에 걸쳐 위반함.
- 한 기업이 한 차례에 걸쳐 방글라데시에 황화나트륨 불법 선적
- 한 기업이 9차례에 걸쳐 미국에 플루오르화수소 (hydrogen fluoride) 수출
- 한 기업이 4차례에 걸쳐 멕시코에 트리에탄올아민 (triethanolamine) 수출

편집자 주: 위에 언급된 세 가지 화학물질은 호주그룹 화학무기 전조물질 목록 (*Australia Group’s Chemical Weapons Precursor list*) 에 의해 통제되는 물질이다. 트리에탄올아민은 화학무기협약 (*Chemical Weapons Convention [CWC]*) 제 3 부칙에도 통제 물질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위의 세 가지 물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선적 전에 한국 정부로부터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무역법을 위반한 기업들 중 세 곳에 대해서는 약 3개월 간 (2006년 6월 5일~2006년 8월 24일) 통제 물자의 수출입 허가 발급이 금지된다. [4] 나머지 세 기업 중 두 곳은 2005년에 단 한 차례 위반을 저질러 위반 내용이 경미하고, 한 기업이 플루오르화수소를 수출한 곳이 한국 정부가 “깨끗한 국가 (clean country)” 로 간주하고 있는 미국이기 때문에,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만 내려졌다. [편집자 주: 한국 당국자들이 미국을 “깨끗한 국가”라고 언급한 것은, 선적된 화학물질이 미국 내에서 불법적인 용도로 전환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었다.] [4]

한국 정부는 최근 미국으로부터 수출통제 이행을 강화하라는 압력을 받고 있으며, 불법 수출 건수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이와 동시에, 효과적인 수출통제시스템의 구축을 위해서는 정부-업계 간의 협력 구조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산업자원부 (MOCIE) 는 2005년 2월 한국 기업들에게 통제 물자 내역과 수출 허가 절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전략물자정보시스템 (Strategic Trade Information System) 을 구축했다. [편집자 주: Asian Export Control Observer 2005년 2월/3월호, 2~3페이지의 “한국, 전략물자수출에 대한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개시해” 기사를 참조하시오. <<http://cns.miis.edu/pubs/observer/asia/index.htm>> 무역협회 (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KITA]) 산하의 전략물자정보센터 (Strategic Trade Information Center [STIC]) 가 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http://www.sec.go.kr>> 에서 접속할 수 있다.] 산업자원부는 기업과 업계 단체들을 위한 강연회와 브리핑을 제공하고 있으며, 2006년 가을쯤에는 수출통제 법규의 이행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향상시키기 위해 한국 내 8개 대학을 돌며 강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2,6] 산업자원부는 2006년 말까지 10,000명이 이러한 수출통제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7]

Sources: [1] The Ministry of Commerce, Industry and Energy (MOCIE) report and press release was issued on May 29, 2006, but a MOCIE official announced the measures to the press on May 28. See “Firms Penalized for Violating Strategic Product Export Rules,” Yonhap News Agency, May 28, 2006; in Lexis-Nexis Academic Universe, <<http://www.lexis-nexis.com>>. [2] “Korea Penalizes Cos for Violating Strategic Product Export Rules,” Asia Pulse, May 29, 2006; in Lexis-Nexis Academic Universe, <<http://www.lexis-nexis.com>>. [3] Im Sang-gyun, “6 gaesa chölyakmulja pulböpsuch’ul, such’urip kümji haengjöngch’öbun” (Six companies illegally export strategic materials, prohibited from importing and exporting), *Maeil Kyöngje Shinmun*, May 29, 2006; in KINDS, <<http://www.kinds.or.kr>>. [4] “Chölyakmulja wiböpsuch’ul 6 gaepch’e chökpai” (Illegal export of strategic materials by six firms exposed), *Sanöpchawönbu podojaryo* (MOCIE report), May 29, 2006, <<http://www.mocie.go.kr>>. [5] “Firms Penalized for Violating Strategic Product Export Rules,” Yonhap News Agency, May 28, 2006; in Lexis-Nexis Academic Universe, <<http://www.lexis-nexis.com>>. [6] “Chölyakmulja suchult’ongje pangmun’gyoyuk shilshi” (Outreach education for export controls of strategic materials to be held), *Naeil Shinmun*, May 2, 2006, p. 14;

in KINDS, <<http://www.kinds.or.kr>>. [7] E-mail correspondence between Shim, Soung-kun, MOCIE Export Control Policy Division, and Daniel A. Pinkston, CNS, June 14, 2006.

국제 소식

터키, PSI 훈련 개최; 인도네시아, PSI 참여 “고려” 중
터키가 주최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PSI]) 훈련 “아나톨리아의 태양 (Anatolian Sun)” 이 2006년 5월 24일~26일 안탈리아 (Antalya) 남부 도시에서 열렸다. 이번 훈련은 터키가 처음으로 주최한 PSI 훈련으로, 이들 간의 항구 내 훈련과 하루 일정의 해상 훈련으로 구성되었으며, PSI 훈련 최초로 육지, 해상, 공중 차단 훈련이 동시에 이루어지기도 했다. 이번 훈련에는 터키, 프랑스, 포르투갈, 미국 등 4개국 군이 직접 참여했으며, 중앙아시아, 이라크, 기타 페르시아 걸프 국가 등 30여 개국 대표들이 훈련을 참관했다. [1,2]

훈련의 첫 단계에서, 4개 참가국의 전함들이 터키의 안탈리아 항구를 출발하여 “적국 (hostile country)” 으로 향하는 화학무기를 운송 중인 것으로 의심되는 상선 (merchant ship) 을 추적하여 멈추게 하는 가상 훈련을 실시하였다. 일단 참가국들의 군함과 항공기가 “의심스러운” 선박의 활동을 감시하기 위해 따라붙고, 터키 군용 헬리콥터가 용의 선박에서 실은 화물을 내려놓으려던 민간 헬리콥터를 안탈리아 지상에 착륙하도록 지시했다. 이후 터키 군인들은 헬리콥터에서 라벨을 통해, 미국 병력은 고속 모터보트를 통해, 용의 선박으로 침투, 장악했다. 다음 단계 훈련에서는, 터키 원자력에너지연구소 (Turkish Atomic Energy Institute) 당국자들이 핵 물질을 운송 중인 것으로 의심되는 트럭 한 대를 정지시키고 수색하는 가상 훈련을 실시했다. [3] 터키 외무부는 훈련 전, 이번 훈련이 특정 국가를 목표로 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이웃 국가인 이란에 대한 경고성 훈련으로 보인다. [1,4]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PSI) 은 부시 행정부가 2003년 5월에 발표한 것으로, 육지, 해상, 공중 루트를 통해 대량살상무기 (WMD) 관련 물질과 미사일 관련 장비, 기술 등이 불법 선적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고안된 다자간 협력체이다. 미국 정부에 따르면 70개국 이상의 국가들이 PSI와 PSI 차단원칙 (PSI Statement of Interdiction Principles) 에 지지를 표하고 있다.

2003년 5월, PSI 가 출범한 이래로, 중동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천천히 지지도가 높아지고 있으나, 인도네시아 등 많은 수의 핵심 국가들이 아직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국방부 주위노 수다소노 (Juwono Sudarsono) 장관이 2006년 6월 8일 인도네시아 정부가 PSI 참여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히는 등 정치적으로 주목할 만한 변화들이 포착되고 있다. 주위노 (Juwono) 장관의 이 같은 발표는 미국의 도널드 럼스펠드 (Donald Rumsfeld) 장관을 만난 이틀 후에 있었다. 인도네시아 언론에 따르면, 주위노 장관은 미국의 정치적, 경제적 중요성 때문에 PSI 참여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인도네시아가 PSI에 전면적으로 참여하지는 않을 것이며, “특별 훈련 (ad hoc manner)”에만 참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인도네시아가 PSI 참여를 통해 말라카 해협 (Strait of Malacca)에서의 경비 역량을 강화하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5] 인도네시아 당국자들은 최근까지도 PSI의 적법성에 의문을 제기했으며, 말라카 해협의 통제에 관련한 자국의 이해 관계에 우려를 표시했었다. [6]

Sources: [1] “Turkey Hosts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Exercise,” U.S. Department of State Bureau of International Information Programs website, May 24, 2006, <<http://usinfo.state.gov>>. [2] Jason Chudy, “Navy Personnel Complete WMD Interdiction Exercise,” *Stars and Stripes* (online edition), May 27, 2006, <<http://www.estripes.com>>. [3] “US, Allies Hold WMD-Seizing Drills in Mediterranean,” Agence France Presse, May 26, 2006; in Lexis-Nexis Academic Universe, <<http://www.lexis-nexis.com>>. [4] “Turkey to Host Military Exercise to Stop Spread of WMDs,” *New Anatolian* (online edition), <<http://www.thenewanatolian.com>>. [5] Tiarna Siboro, “RI To Join U.S.-Led Security Arrangement,” *Jakarta Post* (online edition), June 9, 2006, <<http://www.thejakartapost.com>>. [6]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Update: Australia Hosts Air Interdiction Exercise; Thailand Attends PSI Meeting,” *International Export Control Observer*, April 2006, pp. 19-20, <<http://cns.miis.edu/pubs/observer/index.htm>>.

워크샵과 컨퍼런스

호주 정부, 아시아 내 반(反) 테러리즘, 반(反) 확산 보장 노력의 일환으로, 필리핀에서 수출통제 워크샵 개최

호주 정부는 2006년 5월 10~12일 3일간, 마닐라에 위치한 호주 대사관에서 필리핀 수출통제 당국자들을 대상으로 한 워크샵을 개최했다. 워크샵에는 농업, 무역, 군사, 사법 분야에 걸쳐 50여명의 필리핀 당국자들이 참석했으며, 호주외교통상부 (Australian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DFAT]) 와 호주연방경찰국 (Australian Federal Police [AFP]) 대표들도 참석하였다. 이번 워크샵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에서 대량살상무기 (WMD) 의 확산을 막기 위한 호주 정부의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개최된 것이다. [1,2]

플로렌시오 피안자 (Florencio Fianza) 필리핀 다국적 범죄 특별 공사 (special envoy) 는 워크샵 기간 중, 해당 워크샵이 대량살상무기 화물의 국내 유입 차단에 관한 호주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평했다.

그는 또한 WMD 개발에 사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물자의 확인에 있어 세관과 사법 당국의 당국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히면서, 가령 인스턴트 커피를 만드는데 사용되는 동결건조장비 (freeze drying equipment) 가 생물무기 공격에 사용되는 박테리아를 보존하는데 사용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중용도 물자가 이처럼 부주의하게 수출되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해당 시스템과 법규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 피안자 (Fianza) 특별 공사의 지적에 뒤이어, 파블로 강 (Pablo Kang) 호주 공사 (Chargé d’Affaires) 역시 정부가 효과적인 수출통제체제를 반드시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만약 민감한 물자들이 위험한 집단의 손에 들어가게 된다면, 세계 평화가 보다 위협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2]

워크샵이 열리기 며칠 전인 2006년 5월 9일에는 호주 정부가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에서 테러리즘에 대항하기 위해 지역 국가들에게 향후 4년간 9,260만 호주달러 (7,160만 달러) 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1,3] 전체 지원금 중 필리핀 정부에 대한 지원액이 정확히 얼마인지 알려지지는 않았으나, 상당한 액수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수백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필리핀에 대한 호주 정부의 지원은 다음 분야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필리핀 사법 당국자들을 대상으로 한 호주연방경찰국 (AFP) 의 교육 강화
- 생화학, 핵, 방사능 물질의 지역 통제 강화를 위한 협력▪ 국경통제 분야의 전문가 교환과 정보 공유, 여권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passport database systems) 의 상호 접속을 촉진하기 위한 지역이동경보목록 (Regional Movement Alert List) 지원 [1]

편집자 주: 지역이동경보목록은 분실하거나 도난 당한 여권의 불법 사용 여부를 추적하기 위해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PEC]) 가 고안한 목록이다. [4]

편집자 주: 호주와 필리핀 정부는 반(反) 테러리즘 노력의 일환으로, 현재 공동군사훈련 조약을 협의 중에 있으며, 필리핀 국방부 아벨리노 크루즈 (Avelino Cruz) 장관은 2006년 5월 9일 필리핀 영토 내에 호주 군이 주둔하는 방안을 호주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5] 강 (Kang) 호주 공사는 이 계획에 대한 국내의 비판적 시각에 대하여, 현재 논의되고 있는 협약은 기지 협약 (basing agreement) 이 아니며, 양국간의 정보 교환과 교육 협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호주와 필리핀 양국의 경찰과 군대 간의 협력이 테러리스트의 WMD 확산을 차단하는데 있어 양국 모두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2]

Sources: [1] “Philippines to be a Key Recipient of Australia’s New Regional Counter-Terrorism Package,” Australian Embassy in the Philippines website, May 25, 2006, <<http://www.australia.com.ph>>. [2] “Philippines to Receive

Assistance From Australia for Fighting Terrorism,” *Philippine Star*, May 12, 2006; in FBIS Document SEP20060512093006. [3] “Regional Counter-Terrorism Package,” Media Release, Australia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website, May 9, 2006, <<http://www.foreignminister.gov.au>>. [4] “Regional Movement Alert List,” Fact Sheet, APEC website, accessed June 19, 2006, <http://www.apec.org/apec/news__media/fact_sheets/regional_movement.html>. [5] Volt Contreras, “RP to Benefit from Australia’s Antiterror Aid,” *Philippine Daily Inquirer*, May 12, 2006; in Lexis-Nexis Academic Universe, <<http://www.lexis-nexis.com>>.

카자흐스탄 키질로다에서 내부이행프로그램 (ICP) 워크숍 열려

미국 에너지부 산하 국가핵안보국 (NNSA) 국제보안 협력실 (Office of Global Security Engagement and Cooperation), 비확산 대학원 프로그램 인턴, 신 레이드 (Sean Reid)

미국 에너지부 산하 국립퍼시픽노스웨스트연구소 (Pacific Northwest National Laboratory [PNNL]) 와 카자흐스탄 국영원자력회사 (National Atomic Company [NAC]) 카자토프론 (Kazatompron) 은 2006년 5월 23일~26일 카자흐스탄의 키질로다에서 내부이행프로그램 (Internal Compliance Program [ICP])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미국 국무부가 주관하는 수출통제 및

관련국경보안 지원프로그램 (EXBS) 의 후원을 받아 카자흐스탄에서 개최된 5번째 워크숍이었다.

워크숍에는 카자흐스탄 국영원자력회사 (NAC) 카자토프론에서 세 명의 대표가, 그리고 카자토프론의 10개 계열사 대표들이 참석하였다. 또한 카자흐스탄 산업무역부, 세관통제위원회, 원자력에너지위원회, 핵기술안전센터 등에서 대표가 참석하였고, 러시아 오브닌스크에 위치한 물리전력공학연구소 (A.E. Leypunsky Institute for Physics and Power Engineering [IPPE]) 대표는 강연자로 참석하였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비확산의 국제적 전망, 카자흐스탄 수출통제시스템과 법규의 변화, 세관통제위원회의 민감물자 통제, 기술의 통제, 그리고 기업의 내부 수출통제 이행 강화 방안 등에 대한 발표가 진행되었으며, 퍼시픽노스웨스트연구소 (PNNL) 와 카자토프론 사의 ICP 이행 사례에 대한 발표도 있었다. 또한 부대행사로 카자흐스탄의 실리에 위치한 채광 그룹 제 6 우라늄 변환시설 (Mining Group No.6 uranium conversion facilities) 견학도 실시했다.



International Export Control Observer (<http://cns.miis.edu/pubs/observer>) is devoted to the analysis of WMD export control issues. It is published monthly for the international export control community by the Center for Nonproliferation Studies (CNS), Monterey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 (MIIS), with financial support from the U.S. Department of State. Although every reasonable effort has been made to check sources and verify facts, CNS cannot guarantee that accounts reported in the open literature are complete and accurate. Therefore, CNS shall not be held liable for any loss or damage caused by errors or omissions. Statements of fact and opinion expressed in the International Export Control Observer are the responsibility of the authors alone and do not imply the endorsement of the editors, the Center for Nonproliferation Studies, the Monterey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 or the U.S. Government. Copyright 2006 by MIIS. May be freely reproduced and distributed with proper citation.

Editor-in-Chief

Sonia Ben Ouagham

Associate Editors-in-Chief

Dauren Aben
Stephanie Lieggi

Senior Consultants

Daniel Pinkston
Leonard S. Spector

Co-Editor

Alexander Melikishvili

Associate Editors

Andrew Diamond
Tanat Kozhmanov
Jing-dong Yuan

Contributors

Dauren Aben
Randall Beisecker
Dave H. Kim
Tanat Kozhmanov
Stephanie Lieggi
Ingrid Lombardo
Alexander Melikishvili
Erik Quam
Sean Reid

Reviewers

Cristina Chuen
Richard Cupitt
Charles Ferguson
Elina Kirichenko
Phillip Saunders
Carlton Thorne
Jonathan Tucker
Lars Van Dassen

Copy Editors

Maria Haug
Katya Shutova



Center for Nonproliferation Studies

1111 Nineteenth Street, NW, 12th Floor
Washington, D.C. 20036 USA
Tel: (202) 464-6000; Fax: (202) 238-9603
email: intexcon@miis.edu